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請求論文

『狄公案』의 狄仁傑 形象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奎兌

2014年 2月

# 『狄公案』의 狄仁傑 形象 研究

指導教授 趙 成 植

金 奎 兌

이 論文을 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金奎兌의 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u>沈 揆 昊 (印)</u>
委 員	<u>林 東 春 (印)</u>
委 員	<u>趙 成 植 (印)</u>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 目 次

【국문요약】 .....	ii
I. 序 論 .....	1
1. 研究 動機 및 研究 目的 .....	1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向 .....	2
II. 史書를 통해 본 狄仁傑의 生涯 .....	5
1. 清官의 表象 .....	6
2. 現實主義者的 態度 .....	9
3. 忠臣과 寵臣의 二重的 位置 .....	15
III. 文學作品 속에서의 狄仁傑 人物形象 .....	23
1. 『狄公案』을 통해 본 狄仁傑 人物形象 .....	23
1) 判官 形象 .....	25
2) 醫術家 形象 .....	34
3) 政治家 形象 .....	37
2. 『狄公案』 계열 文學作品을 통해 본 狄仁傑 人物形象 .....	41
1) 探偵 形象 .....	43
2) 武術家 形象 .....	47
3. 狄仁傑 人物形象과 時代現實 .....	50
V. 結 論 .....	55
參 考 文 獻 .....	58
【ABSTRACT】 .....	60

# 『狄公案』의 狄仁傑 形象 研究

金 奎 兌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趙 成 植)

## 【국문 요약】

본 논문은 역사인물인 狄仁傑이 문학작품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물형상을 청대 공안소설인 『狄公案』과 이를 저본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통해 분석하고 『狄公案』 속의 인물형상과 시대현실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사서의 기록을 통해 역사인물인 적인걸의 생애를 고찰한다.

둘째, 청대 공안소설인 『狄公案』을 통해 적인걸의 인물형상을 분석한다.

셋째, 네덜란드인인 로베르트 한스 반 훌릭(Robert Hans van gulik)의 『大唐狄公案』과 현대에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적인걸 인물형상을 분석한다.

넷째, 위에서 연구한 적인걸 형상과 작품이 형성된 시기인 청 말의 시대현실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위의 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사서에 기록된 적인걸은 훌륭한 인품과 합리적인 태도, 관리로서의 두드러진 행적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관리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안소설인 『狄公案』에서의 적인걸의 인물형상은 공안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사건을 해결하는 판관으로서의 형상이 두드러져있다. 그러나 餘他の 공안소설과는 달리 『狄公案』은 소설의 후반부에 정치성이 강한 글을 싣고 있는데 이는 『狄公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 하겠다.

셋째, 『大唐狄公案』과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들에서는 원작인 『狄公案』과는 달리 정치성은 사라지고 대신 논리적인 사건 해결과정에 중점을 두는 서양의 추리소설에 가까워진다. 이로 말미암아 적인걸의 인물형상 또한 탐정으로서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다.

넷째, 『狄公案』만의 특성인 강한 정치성은 淸 末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고발하고 당시 집권세력인 자희태후 일파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唐代의 측천무후와 그 일파의 악행을 제재로 삼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狄公案』의 작자가 소설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狄公案』이 일반적인 공안소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인 권선징악과 통속적인 문체에서 벗어나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고자하는 주제의식을 품은 훌륭한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狄公案』, 『大唐狄公案』, 公案小說, 淸代小說, 探偵小說, 狄仁傑, 人物形象, 淸官, 政治性, 時代現實.

# I. 序 論

## 1. 研究 動機 및 研究 目的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적인걸 2: 신도해왕의 비밀'은 서극 감독이 만들었다는 점과 전작으로 인한 기대감, 또 한국배우 김범의 출연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의 인기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狄仁傑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 소개된 것이 적다. 반면,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드라마 '神探狄仁傑' 시리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한 각종 소설들이 출간되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존인물인 狄仁傑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狄仁傑(630-700)은 唐 王朝의 유명한 宰相으로 字는 懷英, 山西 太原사람이다. 唐 高宗, 中宗, 睿宗, 武則天에 이르기까지 여러 황제를 섬긴 大臣이었다. 특히 武則天 때에는 武氏로 넘어가려던 皇權을 여러 차례 諫言을 통해 다시 李氏에게로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歷史人物로서의 狄仁傑은 一世의 名臣이자 뛰어난 手腕을 가진 政治家로서 唐朝에 충성을 다한 忠臣이라 평가된다.

한편, 歷史人物인 狄仁傑에 대한 이야기는 民間傳說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甘肅省 寧州地域에 전해지는 '狄仁傑斬九龍', 北京地域에 전해지는 '狄仁傑審虎' 전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文學作品으로도 收容되었는데 그 一例가 바로 清代 公案小說인 『狄公案』과 이를 底本으로 하는 네덜란드인 로베르트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이다.

公案小說은 본래 중국 古典小說의 類型 중 하나이다. 公案소설의 起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宋代의 話本작품의 分類 중 하나인 說公案에서 由來되었다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본디 公案이라고 하는 말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뜻으로는 禪家에서 말하는 話頭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는 공안소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林保淳의 견해에 따라 공안소설을 細分해보면 明代 以後에 出刊된 ‘○○公案’이라는 短篇 公案小說集, 文言 筆記小說에 수록된 短篇 公案傳奇, 短篇話本集(三言兩拍 等)에 수록된 공안소설, 마지막으로 長篇小說 중에 들어있는 약간의 공안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sup> 그 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狄公案』은 단편 공안소설집에 해당한다.

清代 公案小說作品인 『狄公案』은 64회로 이루어진 作家 未詳의 小說이다. 光緒 16년(1890)에 간행되었으나 文學概論書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 작품이다. 『狄公案』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자세히 기술한 바,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한다.

『大唐狄公案』은 반 홀릭의 작품으로 본래 중국의 古典文化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狄公案』을 접하고 난 후에 창작한 작품이다. 공안소설인 『狄公案』에서 題材를 취하고 고대 중국의 事件記錄이나 중국인들의 風俗, 文化 등을 배합하여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狄公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은 지금까지도 여러 文學作品의 素材가 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歷史人物인 적인걸의 生涯를 그가 언급되어있는 史書를 통해 살펴보고 以後 文學作品으로 收容되는 과정에서 변화한 적인걸의 人物形象을 公案小說인 『狄公案』과 이를 저본으로 하는 여타의 문학작품에서 찾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변화된 인물형상과 당시 時代現實과의 關係를 밝혀 作者의 主題意識을 探究하는 것이 본 논문의 主眼點이다.

## 2. 研究 現況 및 研究 方向

公案小說에 대한 批判的인 視角에 의해 공안소설에 관한 研究 또한 未盡하였다. 이는 노신이 그의 책 『中國小說史略』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가 清代의 俠義 公案小說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林保淳, 「中國公案小說概述」, 『中國古典小說賞析與研究』(臺灣:正中書局), 1993, pp.511-520.



道光 18년(1838)에 『施公案』 8권 97회가 있었는데 …… 그 文과 意가 모두 拙劣하며 …… 光緒 17년(1891)에 이르러 『彭公案』 24권 100회가 나왔는데 …… 그런데 이것 역시 다른 아닌 賢臣의 微行, 豪傑의 盜寶 같은 類이나 字句가 拙劣하여 거의 문장이 되어 있지 않다. …… 이리하여 『施公案』은 또한 續이 10集까지 이르렀고 『彭公案』은 續이 17集까지 이르렀으며, 『七俠五義』는 續이 24集까지 이르렀으나 千篇一律적으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많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性格도 先後가 갑자기 서로 다른 곳도 있다. 대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모두 惡書가 되고 잘 살펴보질 않아서 마침내 矛盾이 많아지고 말았다.<sup>2)</sup>

거의 모든 공안소설의 작품들에 대해 문장이 졸렬하며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글이란 평가이다. 大家의 이러한 언급 때문인지 이후의 文學概論書에서도 公案小說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김학주의 『중국문학사』<sup>3)</sup>에서는 공안소설 작품을 아예 義俠小說의 범주에 놓는 등 공안소설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國內의 清代小說인 『狄公案』 관련 연구는 全無한 상태이며, 中國 내의 현황 또한 CNKI<sup>4)</sup>에서 검색해본 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臺灣에서는 狄仁傑의 人物形象을 다룬 학술논문 한 편<sup>5)</sup>이 있으나 역시 다른 공안소설의 연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반면 『狄公案』 계열의 소설인 『大唐狄公案』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다수 존재<sup>6)</sup>하는데 이는 主客이 顛倒된 상황처럼 보인다. 하지만 『大唐狄公案』이 외국인인 반 홀릭이 창작한 소설임을 勘案한다면 中外文學의 側面으로 살폈을 때 이 정도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한다.

2) 魯迅 著, 정범진 역, 『中國小說史略』, 학연사, 1998, p.326.

3)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07, p.488.

4) CNKI 中國知網, <http://www.cnki.net/>

5) 凌兆鳳, 「狄仁傑形象淺探」, 『東華中華文學研究』, 2010.

6) 陈来元, 「高罗佩及其《大唐狄公案》」, 『中外文化交流』, 2006.

荣霞, 「高罗佩的《大唐狄公案》里的中国形象」, 『四川外语学院』, 2012.

罗海澜, 「高罗佩《大唐狄公案》女性主义色彩研究」,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2.

侯敏, 「高罗佩与《狄公案》」, 『文史杂志』 1996.

蔡天星, 「高罗佩“狄公案”里的中国传统节日」, 『平顶山学院学报』, 2012. 外 多數.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狄公案』의 판본은 적인걸에 대한 최근의 인기를 반영하듯 그 수가 매우 많으나 본 논문에서는 中州古籍出版社에서 출판된 『狄公案』을 판본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현재 간행된 『狄公案』 판본이 四川人民出版社에서 나온 『(通俗本) 狄公案』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狄公案』의 작자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이 底本으로 삼는 中州古籍出版社 판본과 몇 종류의 책은 작자가 佚名 또는 不題撰人이라고 표시하여 작자의 이름을 적고 있지 않지만 雲南人民出版社 판본과 몇 종류의 책에는 吳趸人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吳趸人(吳沃堯)은 청 말의 대표적인 譴責小說 작가로 그와 『狄公案』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몇몇 출판사들이 『狄公案』의 작자로 吳趸人을 명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은 작자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판본을 삼고 이후에 작자에 대한 사항을 탐구하는 것으로 하겠다.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역사인물로서의 적인걸 인물형상을 史書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적인걸은 唐代의 名宰相으로 名聲을 떨친 인물로 그에 대한 史書의 기록은 그 내용이 매우 많다. 본 논문에서는 『舊唐書』의 기록을 주로 하여 사서에 나타난 적인걸의 行蹟을 살펴서 문학작품으로 수용되기 이전의 적인걸의 특징적인 모습을 몇 가지로 분석하여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문학작품에 수용된 적인걸의 인물형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안소설인 『狄公案』에 수용된 적인걸의 인물형상과 『狄公案』을 토대로 하는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과 그 후 現代에 등장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적인걸의 형상을 몇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史書에 기록된 실제 적인걸의 生涯와 이후의 文學作品의 登場人物로서의 적인걸의 형상을 비교하여 달라진 인물형상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 후에 적인걸의 인물형상과 現實社會와의 관계를 통해 적인걸의 인물형상이 변화된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구해보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성과와 함께 후에 다루어져야 할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겠다.

## Ⅱ. 史書を 통해 본 狄仁傑의 生涯

歴史的으로 적인걸이란 인물이 갖는 위치는 그가 사서 속에서 다루어지는 頻度와 그 分量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적인걸의 行蹟에 관해 기록된 사서는 대표적으로 唐 王朝의 역사를 기록한 『舊唐書』와 『新唐書』, 宋代의 司馬光이 편찬한 『資治通鑑』 등이 있다.

『舊唐書』는 後晋의 劉昫 등이 편찬한 사서로 本紀가 20권, 志가 30권, 列傳이 150권, 총 200권으로 구성되었다. 唐 後期の 기록은 내용면에서 疏略하고 錯誤가 많다. 송대에 이르러 『新唐書』가 편찬된 이후에는 重視되지 않았으나, 청대 考證學의 영향으로 다시금 가치를 인정받는다.<sup>7)</sup> 『新唐書』는 앞서 언급하였듯 송 왕조가 편찬한 사서이다. 北宋의 歐陽脩, 宋祁 등이 찬하였다. 『舊唐書』와 권수, 체계가 약간 변화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 大同小異하다.<sup>8)</sup> 兩唐書 모두 적인걸의 行蹟을 따로 列傳으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생략되고 더해진 것이 조금 있을 뿐 확연히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두 기록 간의 차이를 考察한 논문이 있어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판단된다. 孫翠秀의 논문을 요약해보자면 양당서 간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상세하고 간략함의 차이, 둘째, 문장의 순서, 셋째, 언어의 표현이다. 하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sup>9)</sup>

『資治通鑑』은 宋代의 司馬光이 편찬한 編年體 史書로 周 威烈王 24년부터 五代 後周의 顯德 6년(959)때까지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資治通鑑』에서 다루고 있는 적인걸에 대한 기록 역시 前代의 양 당서나 그에 準하는 사서들을 인용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舊唐書』의 기록을 토대로 적인걸의 인물형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舊唐書·狄仁傑傳』의 내용을 바탕으로 史書에 나타난 적인걸의 생애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淸官의 表象, 現實主義者的 態度, 그리

7) 『中國學 資料解題』, 이춘식 주편, 신서원, 2003, pp.71-72.

8) 앞의 책 pp.406-407.

9) 孫翠秀, 「兩唐書中『狄仁傑傳』之比較」, 『林區教學』 128期, 2007, pp.47-48.

10) 이춘식 主編, 『중국학 자료해제』, 신서원, 2003, p.554.

고 忠臣과 寵臣사이의 二重的 位置이다.

## 1. 清官의 表象

清官은 權門勢族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힘없는 백성에게는 慈愛로운 부모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관리이다. 사람들은 특히 청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英雄化 또는 神格化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관리가 청관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劉亦發의 『中國全史』에 언급된 청관의 특징을 요약해보자면 王朝에 대한 忠心, 政務에 항상 誠實한 태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諫言하는 剛直함, 公明正大한 法 執行, 재주 있는 사람을 아끼는 태도, 自身에게 嚴格하고 家庭을 잘 다스리는 모습 등이 있다고 한다.<sup>11)</sup> 청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清廉’이라고 하는 속성 또한 자신에게 엄격한 청관의 특성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적인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오랜 관직생활동안 훌륭한 관리로서 다른 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舊唐書·狄仁傑傳』의 기록을 토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다. 우선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때, 武衛大將軍 權善才가 실수로 昭陵의 측백나무를 베어 죄를 입으니 인걸이 그 죄가 免職에 해당한다고 上奏하였으나 高宗은 그를 誅殺하라 명했다. 인걸이 또 죄는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상주하였다. 황제가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선제가 능의 나무를 베어낸 것은 나로 하여금 不孝케 한 것이니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 좌우에서 인걸을 바라보며 나가라 하자 인걸이 말하였다. “…… 폐하께서 법을 만드시어 相魏(고대 황제나 제후의 궁 밖에 세운 한 쌍의 건축물)에 걸어 백성들에게 알리고, 徒刑, 流刑, 死刑 모두 等次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極刑을 받을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사형의 명을 내리십니까? 법에 常規가 없다면 만백성이 어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11) 劉亦發, 『中國全史』, 中國辭書出版社, 2009, pp.354-355.

까? …… 지금 폐하께서 소릉의 측백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한명의 장군을 죽이신다면 천년 후에 세상 사람들이 폐하를 어떤 군주라 평가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감히 폐하의 명을 받들지 않고 선재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폐하를 無道함에 빠뜨리지 않으려하는 까닭입니다.” 이에 황제의 뜻이 조금 풀어져 선재는 이로 인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수일이 지나, 인걸에게 侍禦史의 벼슬을 내렸다.

(時武衛大將軍權善才坐誤斫昭陵柏樹，仁傑奏罪當免職。高宗令即誅之，仁傑又奏罪不當死。帝作色曰：「善才斫陵上樹，是使我不孝，必須殺之。」左右矚仁傑令出，仁傑曰：「……陛下作法，懸之象魏，徒流死罪，俱有等差。豈有犯非極刑，即令賜死？法既無常，則萬姓何所措其手足？……今陛下以昭陵一株柏殺一將軍，千載之後，謂陛下爲何主？此臣所以不敢奉制殺善才，陷陛下於不道。」帝意稍解，善才因而免死。居數日，授仁傑侍禦史。)<sup>12)</sup>

위 글은 무위대장군 권선재가 唐太宗의 능 안에 있는 잣나무를 실수로 베어낸 죄로 사형에 처해지자 그를 변호하는 적인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국법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황제가 감정적으로 국법을 거슬러 자신의 뜻을 내세우자 屢次 諫言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이는 군왕이 잘못된 일을 끝까지 간언하여 바로잡는 剛直한 官吏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적인걸이 豫州刺史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文昌右丞으로 전임되어 예주자사로 나갔다. 당시 越王 貞이 汝南에서 擧兵한 일이 실패하여 緣坐된 자가 六七百 人이고, 籍沒될 자가 五千 人이었다. 司刑(大理寺)에서 재촉하여 刑을 행하게 하자 인걸이 그 그릇됨을 안타깝게 여겨 그 판결을 늦추고 비밀리에 表文을 올려 말하였다. “신이 공연하게 上奏하였다면 逆徒를 위하여 容恕를 구하는 것과 같고, 알고는 있으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陛下의 救恤하려는 뜻을 어그러뜨릴까 두려워 表文을 지었다가 다시 없애고 뜻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무리는 모두 本心이 아니었으니 없드

12)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6.

려 바라옵건대 그 잘못됨을 애달피 여겨주소서.” 그러자 황제가 특별히 赦免하여 豐州로 유배시켰다. 예주의 죄수들이 寧州를 지나가는데, 영주의 父老들이 그들을 맞이하여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 狄使君(太守)께서 당신들을 살렸소.” 그러자 德政碑 아래서 서로 손잡고 울며 三日을 齋한 후에 갔다. 예주의 죄수들이 流配地에 이르러 다시 함께 비를 세워 적사군의 덕을 稱頌하였다. (轉文昌右丞, 出爲豫州刺史。時越王貞稱兵汝南事敗, 緣坐者六七百人, 籍沒者五千口, 司刑使逼促行刑。仁傑哀其誣誤, 緩其獄, 密表奏曰: 「臣欲顯奏, 似爲逆人申理; 知而不言, 恐乖陛下存恤之旨。表成復毀, 意不能定。此輩咸非本心, 伏望哀其誣誤。」特敕原之, 配流豐州。豫囚次於寧州, 父老迎而勞之曰: 「我狄使君活汝輩耶!」相攜哭於碑下, 齋三日而後行。豫囚至流所, 復相與立碑頌狄君之德。)<sup>13)</sup>

위 글은 여남에서 일어난 越王 李貞의 난이 平定되고 억울하게 連坐된 사람들이 죄를 받게 되자 그들을 돕기 위해 황제에게 表文을 올린 이야기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와 같은 관리’로서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寧州에 이미 적인걸의 덕을 기리는 德政碑가 세워졌고 유배 간 백성들이 유배지에서 다시금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을 矜恤히 여기는 좋은 관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崇拜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다음은 계속해서 월왕의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에 월왕의 난에 宰相 張光輔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討伐하여 平定하였는데 將帥와 士卒들이 軍功을 믿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으나 인걸은 응하지 않았다. 광보가 노하여 말했다. “태수는 元帥를 가볍게 보는 것인가?” 인걸이 말했다. “河南을 어지럽힌 자는 한 사람의 越王일 뿐입니다. 지금은 한 명의 李貞은 죽었으나 만 명의 李貞이 생겼습니다.” 광보가 그의 말을 詰難하자 적인걸이 말했다. “명공은 병사 30만을 통솔하여 한 명의 亂臣을 平定하였으나 병사들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 橫暴함을 放縱하여 죄 없는 이들이 참혹한 죽

13)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7.

음을 당하는데 이것이 만 명의 이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만약 尙房의 斬馬劍을 얻어 그대의 목을 찌를 수 있다면 설령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광보는 詰難할 수 없게 되자 마음은 더욱 그를 怨望하게 되어 都城으로 돌아가 인걸이 不遜하였다고 상주하였다. (이에) 左遷되어 복주자사에 除授되었다.

(初, 越王之亂, 宰相張光輔率師討平之。將士恃功, 多所求取, 仁傑不之應。光輔怒曰:「州將輕元帥耶?」仁傑曰:「亂河南者, 一越王貞耳。今一貞死而萬貞生。」光輔質其辭, 仁傑曰:「明公董戎三十萬, 平一亂臣, 不戢兵鋒, 縱其暴橫, 無罪之人, 肝腦塗地, 此非萬貞何耶? ……如得尙方斬馬劍加於君頸, 雖死如歸。」光輔不能詰, 心甚銜之。還都, 奏仁傑不遜, 左授復州刺史。)14)

일왕 이정의 난이 당시 宰相이었던 張光輔에 의해 鎮壓되고 후에 그가 이끌었던 병사들이 軍功을 앞세워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노략질하고 괴롭힌다. 이에 狄仁傑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다 결국 左遷되기에 이른다.

淸官으로서 狄仁傑의 형상은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 뚜렷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公案小說의 주인공들인 包公, 海公, 彭公, 施公 등도 적인결과 같이 公正無私하고 慈愛로운 性品을 갖춘 淸官임을 고려할 때 이들 모두 일반 民衆들의 崇拜의 대상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 現實主義者的 態度

狄仁傑의 行蹟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狄仁傑이 당시 一般人들과는 달리 合理的이고 現實主義者的인 態度를 보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舊唐書』의 기록을 토대로 迷信에 대해 排他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狄仁傑의 모습과 江南巡撫使로 江南지역의 淫祠들을 淸폐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現實主義者的 態度를 보인 狄仁傑의 性格的 特徵을 探究하겠다.

14)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p.2887-2888.

우선 早露 元年(679)에 高宗이 汾陽宮으로 행차할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 度支郎中이었던 적인걸이 知頓使를 맡아 고종의 車駕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때에 并州長史인 李沖玄이 행차하는 路程을 바꾸자고 건의한다. 원래 행차하기로 되어 있었던 곳에 ‘妒女祠’라는 淫祠가 있어 民間에 말에 의하면 성대한 행렬이 그 앞을 지나면 반드시 風雷의 災殃이 이른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적인걸이 말하기를 “天子의 행렬은 千乘萬騎가 따르고, 風伯과 雨師가 길을 淸淨하게 하는데 어찌 투너신의 해가 있겠는가?” 하고 반박하였다. 그래서 고종의 행렬은 원래의 路程을 따라 지나가게 되었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자 고종은 “참다운 大丈夫로다.” 라며 歎服하였다 한다.<sup>15)</sup>

위의 예는 당시 일반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 또는 禁忌에 대해 적인걸은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후에 武則天이 그를 강남순무사로 임명한 주요 원인이 되었으리라 본다.

다음은 강남순무사로 임명된 적인걸에 대한 기록이다.

…… 冬官侍郎이 되어 강남순무사로 임명되었다. 吳楚의 風俗에 淫祠가 많아 인걸이 상주하여 千七百 所를 허물고, 오직 夏禹와 吳太伯, 季割, 伍員(伍子胥)의 4개 묘만 남겼다.

(……徵爲冬官侍郎, 充江南巡撫使。吳、楚之俗多淫祠, 仁傑奏毀一千七百所, 唯留夏禹、吳太伯、季割、伍員四祠。)<sup>16)</sup>

『구당서』의 기록은 간략하기 그지없다. 武則天에 의해 수공 4년(688)에 2개월 동안 이루어진 음사철폐사업에 대한 기록으로는 너무 단편적이라 할 만큼 比重이 없다. 하지만 후세의 학자들은 國家禮制와 民間信仰이 충돌한 대표적인 예로 적인걸의 음사철폐사업을 들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評價가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다.

15)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7. (尋加朝散大夫, 累遷度支郎中。高宗將幸汾陽宮, 以仁傑爲知頓使。並州長史李沖玄以道出妒女祠, 俗云盛服過者必致風雷之災, 乃發數萬人別開禦道。仁傑曰:「天子之行, 千乘萬騎, 風伯清塵, 雨師灑道, 何妒女之害耶?」遽令罷之。高宗聞之, 歎曰:「真大丈夫也!」)

16)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7.



『隋唐嘉話』의 『傳奇』의 내용을 보면 『구당서』의 기록보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狄內史 仁傑이 江南按撫使가 되었을 때, 周赧王, 楚王項羽, 吳王夫差, 越王勾踐, 吳夫概王, 春申君, 趙佗, 馬援, 吳桓王 등을 섬기는 神廟 700여 개소가 백성에게 해를 입히기에 모두 철폐하였는데, 다만 夏禹, 吳太伯, 季札, 伍胥 등의 네 종류의 사묘만은 남겨두었다.

(狄內史仁傑, 始爲江南安撫使, 以周赧王、楚王項羽、吳王夫差、越王勾踐、吳夫概王、春申君、趙佗、馬援、吳桓王等神廟七百餘所, 有害於人, 悉除之。惟夏禹、吳太伯、季札、伍胥四廟存焉。)17)

위의 예에 나온 신들은 大神으로 吳楚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던 祠廟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제시된 대신 이외에도 수많은 지역신들을 모시는 小廟들이 많았음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廣異記』에 수록된 설화에는 적인걸이 음사를 철폐하는 과정에 많은 저항이 따랐음을 보여주는 예가 드러난다.

高宗 때 적인걸은 監察禦使가 되어 江南과 嶺南지역에서 神祠들을 거의 다 불살라버렸는데, 端州에 이르러서는 蠻神(오랑캐의 신)와 부딪히게 되었다. 인걸은 그 묘도 불태우길 원했지만, 보내는 사람마다 묘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나오곤 했다. 이에 인걸은 10만 냥의 현상금을 걸고 묘를 불사를 수 있는 자를 구했는데, 마침 두 명이 모집에 응했다. 인걸이 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자, 勅牒을 얻고자 한다고 답하니 인걸이 勅牒을 주었다. 그들은 칙첩을 가지고 가 그 묘에 이르러서는 바로 칙령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곤 칙첩을 펼치고 들어가 그것을 읽으니, 만신은 더 이상 요동도 못했고, 마침내 신묘를 불태워버릴 수 있었다.

(高宗時, 狄仁傑爲監察禦史, 江嶺神祠, 焚燒略盡。至端州, 有蠻神, 仁傑欲燒之, 使人入廟者立死。仁傑募焚之者, 賞錢百千。時有二人出應募, 仁傑問: “往復

17) 劉餗 撰, 『隋唐嘉話』, 中華書局 1997, p.40.

何用?”人云：“願得敕牒。”仁傑以牒與之。其人持往，至廟，便云有敕。因開牒以入，宣之，神不復動，遂焚毀之。)18)

이렇듯 저항에 직면하면서도 2개월 간의 짧은 기간 동안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던 음사들을 1700여 곳이나 철폐하였다. 이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폐단이 많은 음사들을 적절히 제어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만 적인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금 출현한 것으로 볼 때 적인걸의 음사철폐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음사를 철폐하는데 온 힘을 쓴 적인걸을 신으로 모시는 사묘가 적인걸의 생전에 세워진 것은 음사철폐의 실효성이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19)

적인걸이 이렇듯 음사들을 철폐하고 백성들에게 善政을 베풀자 狄仁傑이 奉職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生祠와 德政碑들이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狄仁傑을 제재로 한 민간전설도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인 『狄仁傑斬九龍』 전설을 통해 적인걸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옛날, 長春門 안의 蠟窟 안에 한 마리의 거대한 蠟이 등지를 틀고 있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災難을 일으켰다. 蠟이 州官의 꿈에 現夢하여 말하길 “매년 4월 초하루에 童男童女 각 한 명씩을 바치면 다시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였다. 州의 官吏들은 꿈에 依據하여 例를 세워 매년 백성들에게 더욱 세금을 물렸고, 민간의 外동子女들을 獻納하게끔 강행하였다. 때가 되면 蠟 굴 앞에 제사를 지내며 제물로 바쳤는데, 관리들이 여기에서 貪汚를 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極甚하였다. 적인걸이 赴任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手下에게 명하여 前例에 따라 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다만 分付하길 “때가 되면 그 곳에 끓는 기름 한 술을 준비하고 내가 친히 祭祀에 갈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였다.

그 날이 되어 적인걸이 朝服을 입고 제사에 갔는데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끓는 기름 술을 蠟굴 가까이 옮기게 하고 다시 두 外동 동남동녀를 동굴

18) 『太平廣記 卷298』, 中華書局, 1961, p.2371.

19) 김상범,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2005, pp.138-140.

입구에 가서 騷亂스럽게 하게 하였으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였다. 이렇듯 놀리니 妖邪한 뱀이 급하여 견딜 수 없어 입을 크게 벌리고 꿈틀거리며 나왔다. 적인걸이 곧장 솔을 엮게 하여 끓는 기름을 동굴로 넣었다. 단지 한 차례 怪異한 울부짖음이 들리고는 한 줄기 짙은 煙氣가 동굴 밖으로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요사한 뱀은 끓는 기름에 타 죽고, 두 명의 외동아이는 救出되었으며 寧州의 백성들은 다시는 요망한 뱀의 禍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sup>20)</sup>

(古時候, 在長春門內的蛇洞裏, 盤踞着一條巨蛇, 興妖作怪, 制造災難。它給州官托夢說: 只要每年四月初一, 獻給它獨生童男童女各一爲餉, 就可以不再制造災難給人們。州官依夢立例, 年年給百姓加征賦捐, 強行綁買民間獨生子女, 屆時到蛇洞前祭祀送餉, 官吏們從中貪汙, 百姓受害更甚。狄仁傑到任, 得知此情, 命手下人役照例而行, 但囑: “屆時, 於其地增備滾油一鍋, 待我親往祭祀”。這一天到了, 狄仁傑朝服往祭, 他命人役們先將沸滾的油鍋移近蛇洞, 再以兩個獨生童男童女去洞口晃擾, 只是不准推下洞去。如此逗惹, 妖蛇急不可耐, 張開血盆大口, 蠕動而出。狄仁傑立命人役翻鍋傾滾油入洞。只聽一陣怪吼, 一股濃煙湧出洞外, 冲天而起——妖蛇被滾油燒死, 兩個獨生孩子獲救, 寧州百姓不再受妖蛇之禍患。)

이후의 이야기를 간략히 줄이자면 요사한 뱀은 사실 동쪽 강의 龍母로 강의 아홉 마리의 용이 분노하여 물로 영주를 덮어 용모의 복수를 하자고 結義하였다. 이때 觀音菩薩이 그 위를 지나다가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神通力으로 沮止하였으나 다 막지 못한 물이 영주를 덮치게 되었다. 이에 관음보살은 적인걸의 꿈에 나타나 靑牛와 寶劍을 주어 재앙을 막게 하였다. 꿈에서 깬 후 아홉 마리의 용이 강물을 물고 오자 꿈에서 보았던 청우를 타고 강가에 이르러 보검으로 九龍을 참하니 水災가 消滅되었다고 한다.<sup>21)</sup>

寧州는 『구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적인걸이 赴任하여 善政을 펴 백성들이 그 功德을 稱頌하였다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적인걸에 대한 傳說이 전해지는 것은 淸官으로서 백성들에게 尊敬받던 적인걸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英雄化, 神

20) 『中國民間故事集成 甘肅卷』編輯委員會, 『中國民間故事集成 甘肅卷』, 新華書店出版部, 2001, pp.55-57.

21) 위의 책, pp.55-57.

格化되어 崇拜의 대상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北京地域에서는 적인걸에 대한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진다. ‘狄仁傑審虎’라는 이름의 이 전설은 제목 그대로 적인걸이 호랑이를 審問한 이야기이다. 이 전설을 요약하여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적인걸은 조정에서 쫓겨나 昌平縣의 縣令으로 임명된 지 3년이 지났다. 그의 청렴한 성품으로 인해 政務는 밝게 다스려졌고, 백성들은 安樂하게 살며, 길에 떨어진 것이 있어도 줍지 않으며 밤에도 대문을 닫지 않았다.

하루는 적인걸이 쉬고 있는데 북소리가 들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당에 올라 사건을 물었다. 예순 정도 되는 老婦人이 헤진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었다며 호랑이에게 죄를 물어줄 것을 呼訴했다. 적인걸은 당황했지만 곧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는다.

이튿날이 되어 적인걸은 사냥꾼들을 불러 호랑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나무꾼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십일 내로 자수할 것을 명하는 榜을 붙이게 하였다. 사냥꾼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현령의 명령을 따랐다.

다음날 아침에 호랑이 한 마리가 懸衙로 들어왔다.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보다 문을 닫아버리고, 당에 서있던 아전들도 놀라서 도망치고자 했다. 하지만 적인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적인걸은 驚堂木을 치며 호랑이에게 노부인의 아들에게 해를 끼쳤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인걸은 호랑이가 죄를 인정하자 노부인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는 호랑이에게 노부인의 아들을 죽였으니 노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奉養할 것을 명했다. 호랑이는 판결에 응했고 다시는 사람을 해하지 않으며 노부인을 봉양하다 노부인이 돌아가시자 3년간 侍墓살이를 하고는 깊은 산중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적인걸은 본래 天上의 별이므로 호랑이를 심문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고, 호랑이는 본래 인간세계로 내려온 神獸이므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 말했다.

적인걸의 관리됨이 淸廉하였기 때문에 後人들은 그를 위해 ‘狄梁公祠’를 지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지금의 昌平縣城의 서쪽의 舊縣村에 있다.<sup>22)</sup>

이 전설에서는 백성들의 평가가 인상적인 대목이다. 적인걸을 천상의 별이라 칭하며 신격화했고, 그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지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적인걸이 백성들의 존경과 숭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안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百家公案』에서도 包公이 음사를 철폐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이와 같다.

包公이 仁宗皇帝의 欽差로 巡行하던 중 永州를 지나게 되었다. 영주 땅에는 祠堂이 있어 상당히 靈驗했으나 당시의 관습에 따라 매년 祠堂에 童男童女를 祭物로 바쳐 제사를 지내야만 마을이 평화로웠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집에 憂患이 생겨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 영주의 백성들의 呼訴를 듣고 사당을 불 태워버리고자 하였으나 불을 낸 순간 큰 비가 퍼부어 사당을 태울 수 없었다. 이에 포공은 城隍廟에 가서 祭文을 올려 기도했다. 3일이 지나 비바람이 크게 일더니 천둥번개가 쳤다. 포공이 백성들을 이끌고 사당에 가니 사당은 번개를 맞아 모두 불타고 안에는 길이가 수십 丈이나 되는 하얀 뱀이 죽어 있었다. 모든奇怪的 일이 사라지자 백성들은 포공의 德行을 찬양하였다.<sup>22)</sup>

『백가공안』에서의 포공은 백성들의 힘든 점을 잘 살펴 그들을 위해 음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수단으로 祭文을 올리거나 기도를 통하는 등의 非現實의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포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처럼 奇異한 일이 사건의 진행에 必須不可缺한 요소로 사용된다. 이는 후에도 다루겠지만 『狄公案』과 『包公案』 계열 소설의 확연한 차이 중 하나가 된다.

### 3. 忠臣과 寵臣의 二重的 位置

22) 『中國民間故事集成 北京卷』編輯委員會, 『中國民間故事集成 北京卷』, 新華書店出版部, 2001, pp.45-47의 내용을 요약.

23) 李品武 主編, 『中國公案小說 4, 百家公案』, 吉林大學出版社, 2009, pp.9-10의 내용을 요약.

政治家로서의 적인걸의 행적은 그가 거쳐 간 官職의 浮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험난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舊唐書』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치가로서의 적인걸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唐의 臣下로서 충성을 다한 忠臣으로서의 형상이고, 둘째는 武則天의 총애를 받는 寵臣으로서의 형상이다. 이는 서로 對置된다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적인걸의 관직생활은 이 둘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선 당의 충신으로서의 적인걸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겠다. 『舊唐書』에 의하면 적인걸은 당 고종 때에 明經科에 及第하여 汴州의 判佐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강직한 그의 성격 탓인지 지방 관리들의 誣告를 받아 관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진다. 그때, 工部尙書인 閻立本이 河南道黜陟使로 내려와 순행하던 중이었는데 적인걸의 죄 없음을 간파하고 오히려 그를 “海曲의 明珠요, 東南의 遺寶라.”라고 칭찬하며 推薦했다. 그리하여 그는 并州都督部의 法曹參軍이 되고, 그 후 大理寺丞이 되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다.<sup>24)</sup> 이때의 기록이 『狄公案』이 성립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적인걸은 특유의 강직한 성품으로 司農卿인 韋機와 왕의 신임을 받던 左司郎中 王本立을 彈劾하는 등 조정의 정치에 개입하여 당시의 조정을 一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左遷을 겪으며 中央職과 地方職을 두루 거치는 여찌 보면 順坦치 않은 관직생활을 계속 이어간다.

그가 62세가 되던 해(691) 처음으로 ‘地官侍郎判尙書 同鳳閣鸞臺平章事’라는 재상의 반열에 오른다. 하지만 1년 뒤 酷吏였던 來俊臣의 誣告로 逆謀의 죄를 입어 下獄되는 지경에 이른다. 아래의 예문은 적인걸이 하옥된 과정에 대한 글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來俊臣의 무고로 인해 하옥되었다. 이때 한번 물음에 인정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는 例가 있어 내준신이 인걸을 逼迫하여 한번 물으면 反逆을 인정할 것을 명했다. 인걸이 탄식하며 “大周의 革命으로 萬物이 새롭게 되었으니, 당 왕조의 옛 신하로 기꺼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역한 것은 사

24)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5.

실이오.” 하였다. 내준신은 이내 조금 너그럽게 대했다. 判官 王德壽가 인걸에게 일러 말하길 “尙書께서 필시 死刑에서 減刑되실 겁니다. 제가 승진을 하려 하니 상서께서 楊執柔를 끌어들이실 수 있겠는지요?”라고 하자, 인걸이 말하길 “어떻게 그를 끌어들이는가?” 하니 덕수가 말하길 “상서께서 春官이실 때, 집유가 그 司의 員外를 맡았으니 그를 끌어들이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인걸이 말하길 “皇天后土께서 나 적인걸을 보내어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며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니 피가 흘러 얼굴을 덮었다. 왕덕수는 두려워하며 그에게 謝罪하였다.

(未幾, 為來俊臣誣構下獄. 時一問即承者例得減死, 來俊臣逼脅仁傑, 令一問承反. 仁傑歎曰: 「大周革命, 萬物唯新, 唐朝舊臣, 甘從誅戮. 反是實!」 俊臣乃少寬之. 判官王德壽謂仁傑曰: 「尙書必得減死. 德壽意欲求少階級, 憑尙書牽楊執柔, 可乎?」 仁傑曰: 「若何牽之?」 德壽曰: 「尙書為春官時, 執柔任其司員外, 引之可也.」 仁傑曰: 「皇天后土, 遣仁傑行此事!」 以頭觸柱, 流血被面, 德壽懼而謝焉.<sup>25)</sup>

『자치통감』의 기록으로 조금 더 보충하자면 左臺(禦史臺)의 中丞인 來俊臣이 죄를 꾸며 任知古, 狄仁傑, 裴行本, 崔宣禮, 盧獻, 魏元忠, 李嗣眞 등이 모반하였다고 고변한다.<sup>26)</sup> 이로 인해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고 武則天의 위세를 업은 내준신을 비롯한 酷吏들이 得勢하게 된다. 적인걸은 여기서 才智를 발휘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다. 連坐된 다른 이들이 모진 拷問을 당하고 있을 때 그만은 몸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의 이야기는 내준신의 무고를 벗고 옥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이미 反逆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맡은 관청에서는 형을 행할 때를 기다릴 뿐 더는 엄하게 감시하지 않았다. 인걸이 간수에게 紙筆墨을 얻어 이불보를 찢어 원통함을 呼訴하는 글을 쓰고 솜옷 안에 두고는 덕수에게 말하길 “때가 바야흐로 더우니 청컨대 가족들로 하여금 이 솜옷의 솜을 가져가게 하시오..” 하니 덕수가 그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인걸의 아들 광원이 書信을 얻어 이것

25)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8.

26) 司馬光 撰, 권중달 譯, 『자치통감 22』, 삼화출판사, 2009, p.17.

을 가지고 告變하니 武則天이 불러 謁見하였다. 서신을 보고 준신에게 물으니 준신이 말하길 “인걸은 冠帶를 벗지 않았으며 자는 곳도 심히 편안한데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죄를 自服하겠습니까?” 武則天이 사람을 시켜 그를 監視하게 하자 준신은 인걸에게 두건과 혁대를 착용하게 하여 사자를 만나게 하고, 이내 덕수에게 인걸 대신 謝死表를 짓게 하여 使者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다. 측천이 인걸을 召喚하여 말하길 “반역을 承服한 것은 어찌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길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拷問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武則天이) “어찌하여 謝死表를 지었는가?” 하니, 말하기를 “신은 그러한 表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그에게 보이니 이내 대신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어,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고 彭澤令으로 좌천되었다. 武承嗣가 屢次 上奏하여 그를 誅殺할 것을 청했으나 則天이 말하길 “짐은 원래 부터 악한 이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나 뜻은 救濟하는데 있다오. 이미 슈이 下達되었으니 다시 바꿀 수 없소.”하였다.

(既承反, 所司但待日行刑, 不復嚴備. 仁傑求守者得筆硯, 拆被頭帛書冤, 置綿衣中, 謂德壽曰: 「時方熱, 請付家人去其綿.」 德壽不之察. 仁傑子光遠得書, 持以告變. 則天召見, 覽之而問俊臣, 俊臣曰: 「仁傑不免冠帶, 寢處甚安, 何由伏罪?」 則天使人視之, 俊臣遽命仁傑巾帶而見使者. 乃令德壽代仁傑作謝死表, 附使者進之. 則天召仁傑, 謂曰: 「承反何也?」 對曰: 「向若不承反, 已死於鞭笞矣.」 「何為作謝死表?」 曰: 「臣無此表.」 示之, 乃知代署也. 故得免死, 貶彭澤令. 武承嗣屢奏請誅之, 則天曰: 「朕好生惡殺, 志在恤刑. 渙汗已行, 不可更返.」)<sup>27)</sup>

적인걸은 재빨리 반역을 인정하고 몸을 사린 후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불보에다 글을 써서 武則天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후 상황을 알아본 武則天은 이내 적인걸과 연좌된 자들을 좌천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한다. 적인걸의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라 하겠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그저 누명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의문이다. 이후의 행적은 武三思에게 황위를 계승하려는 武則天에게 간언하여 그 계획을 폐기하게 하고, 당의 충신이 될 만한 이들을 養成하여 적인걸 死後에 武則天을 皇位에서 몰아내는 神龍政變을 일으키게 하는데 커다란 역

27)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p.2888-2889.



할을 하게 된다.

『구당서』를 비롯한 『신당서』, 『자치통감』 등의 사서에서도 狄仁傑이 武氏로의 皇位繼承을 저지한 일화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한 宋代 話本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梁公九諫』이다. 梁公은 狄仁傑을 뜻하고 九諫은 아홉 번 간언하였다는 말이다. 魯迅의 설명에 따르면 武后가 太子를 폐하여 廬陵王으로 하고 帝位를 그의 조카인 武三思에게 전하려 하였으나 狄仁傑의 極諫 아홉 번을 듣고 난 다음 비로소 깨닫고 소환하여 다시 태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이다.<sup>28)</sup>

아홉 번의 간언 중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에 수록된 부분인 ‘六諫(여섯 번째 간언)’을 예로 들어보겠다.

則天은 잠들어三更에 이르자 한 꿈을 꾸었다. 꿈에 大羅天女와 장기를 두었는데 盤床에 말은 아직 남아있으나 금세 將이 죽게 되어 여러 차례 천녀에게 지고 忽然히 놀라 깨었다. 다음날 朝會에 나아가 여러 大臣들에게 그 꿈이 어떠한가를 물었다. 狄 宰相이 아뢰어 말하길 “臣이 이 꿈을 解夢하건대 나라에 祥瑞롭지 못합니다. 폐하께서 꿈에 대라천녀와 상대하여 장기를 두심에 반상에 말이 있어도 금세 장을 잃어 여러 차례 천녀에게 지셨다고 하셨는데 대개 반상에 말이 있어도 그 위치를 얻지 못하면 도리어 장을 먹히고 그 소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太子 廬陵王은 천리나 떨어진 房州로 귀양가 있는데 이는 장기의 반상에 말이 있었으나 그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써 마침내 이 꿈에 感應한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東宮의 자리에 속히 廬陵王을 세워 儲君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무삼사를 세우신다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則天睡至三更，又得一夢。夢與大羅天女對手着棋，局中有子，旋被打將，頻輸天女，忽然驚覺。來日受朝，問諸大臣：“其夢如何？”狄相奏曰：“臣圓此夢，於國不祥。陛下夢與大羅天女對手着棋，局中有子，旋被打將，頻輸天女，蓋謂局中有子，不得其位，旋被打將，失其所主。今太子廬陵王貶房州千里，是謂局中有子，不得其位，遂感此夢。臣願東宮之位，速立廬陵王爲儲君；若立武三思，終當

28) 魯迅, 『中國小說史略』, 정범진 譯, 학연사, 1998, p124.

不得。”) 29)

이로 인해 결국 武三思에게 帝位를 계승하고자 하였던 계획은 철회되었고 귀양 갔던 廬陵王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태자가 되고, 神龍政變에 의하여 당 왕조가 수복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이 모두가 한 사람, ‘政治家’ 적인결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서술하겠지만 『狄公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사건의 전모가 각색되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언급하였듯 당의 충신으로서의 적인결의 모습과는 반대로 武則天이 신뢰하는 寵臣으로서 武則天이 政事를 돌봄에 助力者로서의 모습 또한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내준신의 무고에 의해 澎澤縣丞으로 좌천된 이후 관직의 변화를 보면 분명해진다.

『구당서』에 의하면 적인결이 팽택현령으로 부임한 3년간 그곳에 백성들에 의해 生祠(생전에 세워진 사당)가 세워질 정도로 그곳의 백성들에게 큰 歡迎을 받았다. 이후 거란의 반란 때 魏州刺史가 되어 인심을 按撫하고, 산업을 회복하고, 軍政을 整頓하여 거란의 再侵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이 공으로 그가 68세가 되던 해인 神功 元年(697)에 ‘鸞臺侍郎 同鳳閣鸞臺平章史’라는 宰相의 지위에 다시 한 번 임명된다. 여기에 銀青光祿大夫에 加座되고, 納言을 겸하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sup>30)</sup> 이렇게 적인결은 다시금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이는 武則天의 信任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적인결의 뛰어난 정치력과 강직한 성품이 武則天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無名氏의 『世說新語姓彙韻分』이라는 책에 적인결에 대한 설화가 남아있다. 이 설화의 내용은 적인결이 宰相이 된 후의 이야기인데 실로 적인결의 處地를 잘 설명해준다고 보아 소개한다.

적인결이 재상이 되었을 때 그의 堂姨母 盧氏가 午橋의 별장에 살고 있었는데, 적인결은 매번 복날과 선달그믐날에 매우 정중하게 예물을 갖추었다. 적

29) 魯迅, 『中國小說史略』, 정범진 譯, 학연사, 1998, pp.124-125.

30)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9를 요약.

적인걸이 한번은 눈이 온 후에 휴가를 얻어 노씨를 찾아가 안否를 물었는데, 마침 그의 이종사촌동생이 활과 화살을 옆에 끼고 썰매와 토끼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음식을 올려 堂 위에 차려놓았다. 이종사촌동생은 적인걸을 돌아보고 인사를 했지만 그 뜻은 매우 업신여기고 거만하였다. 적인걸이 당이모에게 말했다. “제가 다행히도 재상이 되었으니, 사촌동생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내 힘을 다해 그의 청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러자 당이모가 말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있는데 그에게 女主를 섬기게 하고 싶지 않네.” 적인걸은 부끄러워하면서 떠났다.

(狄仁傑爲相，有盧氏堂姨居午橋別墅，仁傑伏臘脩禮甚謹。嘗雪後休暇，候盧氏，適見表弟挾弧矢攜雉兔歸，羞味進於堂上。顧揖仁傑，意甚輕傲。仁傑因啓曰：“某幸爲相，表弟有所欲，願悉力從其請。”姨曰：“吾止有一子，不欲令事女主。”仁傑懺而去。)31)

적인걸은 재상이 되었지만 이처럼 일부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다. 예부터 ‘忠臣不事二君’이란 말이 있듯 사실 두 임금을 섬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재상에 오른 후 적인걸에 대한 武則天의 寵愛는 점차 커져 巡行하는 자리에 반드시 적인걸을 帶同하였고, 三陽宮에 순행을 가는데 王公과 百官들이 모두 侍從하였으나 유독 적인걸에게만 특별히 머무를 저택을 下賜하는 등 그 恩寵이 비할 바가 없었다고 전한다.32)

700년 9월 洛陽의 私宅에서 적인걸이 숨을 거두자 武則天은 哀悼를 표하며 3일간 朝會를 폐하고, 文昌右相을 追贈하며 諡號를 文惠라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통감』의 기록이 더 상세하므로 이를 소개하겠다.

太后가 內史인 梁文惠公 적인걸을 믿고 중히 여겼는데, 신하들은 따라가지 못하였고, 항상 그를 ‘國老’라고 이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적인걸은 자주

31) 김장환 註譯, 『世說新語姓彙韻分 下』, 학고방, 2012, pp.219-220.

32)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93. (聖歷三年，則天幸三陽宮，王公百僚鹹經侍從，唯仁傑特賜宅一區，當時恩寵無比。)

太后的 面前에서 그 허물을 直諫하였는데 태후는 매번 뜻을 굽히고 그를 따랐다. 일찍이 태후를 좇아서 遊幸하는데, 바람을 만나서 적인걸의 巾이 떨어지고 말이 놀라서 멈추지 않자 태후가 태자에게 명하여 쫓아가 말의 재갈을 잡게 하고 그것을 잡아매게 하였다. 적인걸이 여러 차례 老患으로 辭職을 청하였지만 태후가 허락하지 않았다. …… 辛丑日에 사망하자, 태후가 울면서 말하였다. “朝堂이 텅 비었구나!” 이로부터 조정에서 큰일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태후가 번번이 歎息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나의 國老를 빼앗아 간 것이 어찌 너무도 이른가!”

(太后信重內史梁文惠公狄仁傑，群臣莫及，常謂之國老而不名。仁傑好面引廷爭，太后每屈意從之。嘗從太后遊幸，遇風吹仁傑巾墜，而馬驚不能止，太后命太子追執其鞍而繫之。仁傑屢以老疾乞骸骨，太后不許。……辛丑，薨，太后泣曰：“朝堂空矣！” 自是朝廷人事，眾或不能決，太后輒歎曰：“天奪吾國老何太早邪!” )<sup>33)</sup>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적인걸에 대한 武則天의 信任은 상당한 것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의 충신임이 분명한 적인걸이 어째서 武則天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던 것일까? 이는 아직도 議論이 紛紛한 바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 변명하자면 이왕에 武則天이 權座에 올랐으니 무의미한 희생을 하지 말고 그를 도와 나라를 통치하여 국력을 그대로 보존하여 다시 李氏 宗親으로 하여금 당 왕조를 수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武則天의 치세가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시기였으나 太宗의 貞觀의 치세와 武則天의 뒤를 이은 顯宗의 開元의 치세 사이에서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章은 史書를 통한 적인걸의 生涯에 대한 探究였다. 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사서(특히『舊唐書』)의 기록에서 淸官의 表象, 現實主義者的 態度, 忠臣과 寵臣의 二重的인 位置의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점차 民間에 收容되어 지방의 유명한 傳說이나 話本의 題材가 되는 등의 樣相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33) 司馬光 撰, 권중달 譯, 『자치통감 22』, 삼화출판사, 2009,

### Ⅲ. 文學作品 속에서의 狄仁傑 形象

#### 1. 『狄公案』을 통해 본 狄仁傑 人物形象

적인걸의 事件解決 記錄을 소재로 한 清代 公案小說인 『狄公案』은 또 다른 이름으로 『武則天四大奇案』 또는 『狄梁公全傳』으로 불린다. 작가는 알 수 없고 64회로 이루어져 광서 16년(1890)에 刊行되었다.<sup>34)</sup> 박소현은 그의 논문에서 『狄公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9세기 말 무명씨(無名氏) 작가에 의해 출판된 이 소설(『狄公案』)의 줄거리는 당대(唐代) 측천무후(則天武后) 집권기에 적인걸(狄仁傑, 630-700)이라는 인물이 부패한 지배층의 범죄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다섯 개의 범죄사건을 64회에 나누어 신고 있는데 대체로 정치성이 강한 宮庭秘史의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明代의 『百家公案』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소위 ‘三流小說’의 색채, 즉, 조급한 짜맞추기식 編輯에 의한 영성한 구성, 반복되는 에피소드, 그리고 엉터리 문장력 같은 특성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치밀한 짜임새와 精練된 文體는 이 소설의 작가가 상당한 학식을 갖춘 文人임을 대변에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또한, 이 소설이 『백가공안』과 같이 폭넓은 독자층을 겨냥해 쓰인 것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 집단을 겨냥해 쓰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sup>35)</sup> 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의 중국소설사의 서술과는 분명히 다른 평가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중국소설사에서 위치가 불분명하던 『狄公案』의 가치를 再定立해보고자 한다.

『狄公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네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典型的인 공안소설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朝廷重臣들에 협조하여 貪官汚吏를 처벌하고 당 中宗의 復位를 도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狄公案』의 네 가지 사건부터 간략히 소개하겠다.

34) 黃巖伯, 『公案小說史話』, 遼寧教育出版社, 2000, p.95.

35)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 -문화적 경계의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 17집, 2003, p.248.

네 가지 사건은 첫째, 六里墩에서 일어난 비단 상인 피살사건, 둘째, 皇華鎭의 周氏가 남편을 해한 사건, 셋째, 孝廉인 華國祥의 며느리 暴死 사건, 마지막으로 白馬寺의 淫僧이 寺院을 더럽히고 民婦를 劫奪한 사건이다.

우선 첫째 사건은 昌平縣 치하인 六里墩의 孔氏 客店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어느 날 점주인 孔萬德이 자기 집에 머물던 湖州 출신 비단 상인들이 새벽에 피살되어 관청으로 사건을 알려온다. 조사 과정 중 두 屍體 중 한 軀의 屍體가 객점에 머물던 상인이 아님을 발견하고 사건은 迷宮에 빠진다. 적인걸은 수하인 馬榮으로 하여금 단서를 찾게 하고, 그와 함께 ‘雙土寨’라는 곳에 가게 된다. 山寨 안에서 비단 상인인 趙萬全과 오해로 인해 싸움이 벌어진다.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趙萬全이 제공한 단서로 살인 흉수인 邵禮懷를 찾아낸다. 邵禮懷는 재물을 보자 다른 마음이 생겨 같이 다니던 동료로 죽이고 살인 과정에서 馬夫가 목격하였음을 알고 마부를 죽이고는 시신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적인걸은 법에 따라 邵禮懷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둘째 사건은 六里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 우연히 남편을 모살한 사건을 발견한다. 적인걸은 떠돌이 郎中(醫員)으로 분장하여 거리를 偵探하던 중 한 늙은 寡婦를 만나고 노인이 집안의 병어리 손녀를 고쳐줄 것을 청하여 함께 그 집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분위기가 이상한 노인의 며느리인 과부 朱氏를 만나고 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몇 차례 다니던 중 주씨의 남편이 死因을 알 수 없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을 시켜 알아보던 중 주씨와 書生인 徐德泰가 벽을 사이에 두고 정을 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주씨와 서덕태를 체포하여 조사하였으나 그를 살해한 방법을 증명할 수 없어 閻羅大王으로 분장하여 밤중에 주씨를 심문하여 모든 사실을 알아낸다. 원래 주씨는 鐵釘으로 머리를 찌른 것으로 상처가 너무도 가늘어 머리카락에 가려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사건이 해결되고 주씨와 간음한 서덕태는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세 번째 사건은 孝廉인 華國祥이 막 결혼한 자신의 며느리가 갑자기 죽었다며 사건을 알려 온데서 시작한다. 시신을 검시하니 전신에 푸른 반점이 있고 七孔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는 중독의 증상으로 화국상은 적인걸에게 빨리 사건의 원흉을 알아낼 것을 요구했다. 조사 과정 중 화국상이 지목한 용의자인 舉人인 胡作賓이 단지 血氣方壯하여 한때 충동적으로 失言하였을 뿐 실제로 살인의 흉수

는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건의 眞相은 더욱 알기 어려워졌다. 苦心하고 있던 적인걸에게 하인이 茶를 내오고 무의식적으로 차를 바라보던 적인걸은 찻잔에 먼지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 순간 적인걸은 어떤 靈感이 떠올라 화국상의 집으로 찾아가 방 안의 차를 끓이는 곳 위에서 한 마리의 毒蛇를 잡는다. 사건의 진실은 처마 위에 살던 독사의 毒液이 우연히 찻잔으로 흘러 들어가 그 걸 마신 화국상의 며느리가 中毒되어 죽은 것이었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난다.

마지막 사건은 民婦의 失蹤 사건이다. 적인걸은 위의 3가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후 閻立本의 추천으로 朝廷에 重用되어 중앙으로 진출하고, 거기서 武則天의 男寵인 僧侶 薛懷義가 궁중을 어지럽히고 權勢를 믿고 백성들을 彈壓하고 많은 不法을 저지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이때 王進士가 사건을 알리길 자신의 一家가 설회회의 절에서 周遊한 후 며느리인 李氏가 돌연 失蹤되어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적인걸이 절을 探訪한 결과 설회회의가 이씨를 절의 地下 暗室에 가두고 姦淫을 저질렀음을 알게 된다. 적인걸은 조정에 나아가 설회회의를 철저히 조사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武則天은 설회회의를 擁護하기만 했다. 적인걸은 교묘한 꾀를 내어 설회회의를 法網에 걸리게 한 것과 함께 武則天의 친족인 武三思 一黨을 공격했다.

이 네 사건 이후 적인걸은 조정의 정직한 대신들과 함께 무삼사 등과 政爭을 벌여 끝내 廬陵王을 보호하여 등극하게 하고, 武則天을 폐하여 황태후로 만든다. 그리고 무삼사 일당을 일망타진하여 당 왕조의 중흥을 이뤄내고, 이씨 일족이 다시금 왕권을 되찾게 한다. 전체적인 소설의 구성상 이 부분이 작가의 주제의식이 담긴 부분이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以上이 공안소설 『狄公案』의 대략의 줄거리였다. 이를 토대로 3가지 정도의 형상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첫째는 판관형상, 둘째는 의술가 형상, 셋째가 정치가 형상이다.

### 1) 判官 形象

대다수, 아니 모든 공안소설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조사하고 범인을 밝혀

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범인을 처벌하는 ‘判官’이 등장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아는 ‘包青天’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리고 공안소설의 주인공은 주로 ‘판관’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공안소설의 명칭이 판관의 성을 따 『包公案』, 『狄公案』, 『彭公案』, 『施公案』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판관으로서의 역할은 地方 首領의 역할 중 하나이다. 당시 지방 수령은 행정, 사법, 군무를 통틀어 관할하는 관리였다. 그렇기에 판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 관리도 2장에서 다룬 ‘淸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청관의 형상 중에서 판관의 형상은 공안소설이라는 특수한 장르에서 주로 묘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史書 속에서의 적인걸은 明經科에 及第한 후 汴州判佐로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변주판좌라는 관직은 司法에 관련된 것으로 이후의 적인걸의 관직변화를 살펴보면 거의 법을 집행하는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적인걸의 나이 46세가 되던 해인 675년에 도성으로 소환되어 大理寺丞에 임명된 것은 적인걸의 판결 능력을 드러낸 좋은 기회였다. 『구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인걸은 儀鳳 중에 大理丞이 되어 일 년 동안 유, 무죄를 판결한 사람이 일만 칠천 명이었으나, 억울하다고 再訴한 자가 없었다.”<sup>36)</sup> 라고 전한다. 이러한 전례 없는 判決 能力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민간에 전해지면서 문학으로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인 六里墩 사건에서 誣告를 당한 공만덕의 무죄를 증명하는 장면이다. 원래 공만덕의 집에 머물던 두 명의 비단상인이 마을입구에서 죽었는데 공만덕과 사이가 좋지 않던 胡德이 하인을 시켜 시신을 공만덕의 집 문 앞으로 옮겨서 공만덕에게 살해 혐의를 씌운 것이다. 적인걸은 호덕이 시신을 함부로 옮긴 것을 문제 삼아 공만덕의 무죄를 밝혀낸다.

적공이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함을 치며 말하기를 “네 이놈! 내가 누가 흉수인지 묻지 않았는데 너는 공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찌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는가? 시신을 옮긴 것이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

36) 『舊唐書·卷八十九·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p.2886. (仁傑, 儀鳳中為大理丞, 周歲斷滯獄一萬七千人, 無冤訴者.)



공만덕이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가 시체를 마을입구에 버렸다면 너는 마땅히 먼저 縣에 알려 그 緣故를 설명하고 내가 검시한 후에 封印의 표시를 보이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왕법을 輕視하고 감히 두 사람의 시신을 이곳에 옮겼단 말이냐! 이는 意圖가 있어 꾸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그(공만덕)와 통하여 謀害하고서는 장물의 분배에 불만을 품고 먼저 자수한 것이로다. 나는 먼저 너에게 엄히 죄를 묻고 이후에 다시 엄하게 拷問하리라.” 라고 하였다. 아전에게 명하여 刑杖 200대를 때리게 하니 바로 고함소리가 하늘에 닿고 피부가 찢기고 살이 터졌다. 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공만덕은 억울하게 호덕에게 무고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인명사건이라 하는 수 없이 감히 誣담하지 못했다. 이때에 적공의 이러한 방법을 보고 衆人들은 이미 존경하며 말했다. “과연 名不虛傳이구나. 정말로 精明한 淸官이로다!”

(狄公不等他說完，當時喝道：“汝這狗頭，本縣且不問誰是凶手，你既是在公人役，豈能知法犯法，可知道移屍該當何罪？無論孔萬德是有意害人，既經他將屍骸拋棄在鎮口，汝當先行報縣，說明原故，等本縣相驗之後，方能請示標封。汝爲何藐視王法，敢將這兩口屍骸移置此處！這有心索詐，已可概見；不然即與他通同謀害，因分贓不平，先行出首。本縣先將汝重責一頓，再則嚴刑拷問。”着令差役，重打了二百刑杖。登時喊叫連天，皮開肉綻。所有那鎮上的百姓，明知孔萬德是個冤枉，被胡德誣害，無奈是人命案件，不敢摻入裏面，此時見狄公如此辦法，眾人已是欽服，說道：“果然名不虛傳，好一個精明的淸官！”)<sup>37)</sup>

적인결은 이미 호덕의 간계를 간파하고 현령의 허락 없이 시신을 옮긴 죄를 물어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하고 또 이를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 공표하여 공만덕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긴다. 재빠른 상황판단과 세심한 처사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양의 탐정소설과 달리 중국의 공안소설은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탐정소설이 사건의 해결과정과 범죄의 수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안소설은 악인을 처벌하고 억울한 이를 구제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래서 『狄公案』에도 위와 같이 형을 가하고 고문을 하는 등의 수단이 등장한다.

37)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제2회, pp.7-8.

다음은 역시 狄公이 형을 가하여 범죄사실을 토설하게 하는 내용이다. 적공이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인 邵禮懷를 잡았으나 범인은 죄를 부인하였다. 그래서 증인인 공만덕과 對質하였으나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의 글은 이후의 내용이다.

(적공이) 이때 書案을 치며 외쳤다. “네 이놈!,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감히 함부로 지껄이느냐? 重刑을 쓰지 않으면 진실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바로 좌우에 명하여 철로 된 줄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불로 빨갱게 구워 붉은 계단에 놓고는 좌우의 두 사람에게 흉악한 죄수를 일으키게 하여 데리고 가 무릎을 드러내게 한 후 그 위로 꿰어앉게 하였다. 다만 “아이고!”하는 신음소리만 들리고 한바탕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치치’하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진실로 고통이 골수에 이르러 邵禮懷는 벌써 혼미한 상태가 되었다. 다시 그의 두 다리를 보니 가죽과 살이 이미 뿔 나무와 같았고 비릿한 냄새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형을 집행하는 형리가 큰 화로를 계단 아래로 옮겨 놓고 한 그릇의 식초를 가져오게 하여 화로를 향해 한 번 뿌렸다. 즉시 시큼한 연기가 피어올라 정수리로 스며들었다. 차 반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되자 소예회가 呻吟을 내며 점차 깨어났다. 적공이 말했다. “너는 자백할 테냐, 아니면 자백하지 않을 테냐? 만약 다시 질질 끈다면 나는 바로 다른 형을 행할 것이다.” 소예회는 이때가 되어 실로 더는 형을 받을 수 없어 단지 위를 향해 아뢰 수밖에 없었다. …… 이때 글 쓰는 아전이 口述한 내용을 기록하고 큰 소리로 한 번 읽었다. 소예회에게 명하여 지장을 찍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當時拍案叫道：“你這狗頭，分明確有證據，還敢如此亂言，不用重刑，諒難定案。” 隨即命左右取了一條鐵索，用火燒得飛紅，在丹墀下鋪好，左右兩人將凶犯提起，走到下面，將磕膝露出，對定那通紅的練子納了跪下。 只聽“哎喲”一聲，一陣清煙，癡癡的作響，真是痛入骨髓，把個邵禮懷早已昏迷過去，再將他兩腿一望，皮肉已是焦枯，腥味四起。只見執刑的差役將火爐移到階下，命人取過一碗酒醋，向爐中一潑，登時醋煙四起，透入腦門。約有半盞茶時，邵禮懷沉吟一聲，漸漸地蘇醒。 狄公道：“你是招與不招？若再遲延，本縣就另換了刑法了。” 邵禮懷

到了此時，實是受刑不過，只得向上稟道。……當時書役，將口供錄好，高聲誦念一遍，命邵禮懷蓋了指印，收下監牢。)38)

이 부분은 고문의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었고 정신을 잃은 죄인을 다시 깨우는 방법도 소개되어있다. 형장에서 고문하는 장면이 저절로 연상될 만큼 묘사가 뛰어나다.

여기서 古代의 判官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縣의 官廳으로 사건이 접수된다. 사건을 접수한 현령은 직접 또는 아전을 부려 사건현장에 나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관청에서 公堂을 열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심문한다. 심문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인 고문이 종종 이루어졌고 죄를 인정하면 그 자백을 받아들여 적고 문서화 한 후 죄인의 지장을 찍게 하여 서류를 갖춘다. 그 이후 법에 따라 죄에 맞는 처분을 내린다. 공안소설의 이러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사람들이 당시의 司法文化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주인공은 종종 暗幕에 가려 사건의 真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餘他的 공안소설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神靈의 도움 등 超自然的인 수단에 의해 非論理的으로 해결된다. 이는 서양의 探偵小說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39)

그러나 『狄公案』에서는 신령의 도움과 같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다른 공안소설보다 적게 등장한다. 물론 모든 수사과정이 논리적으로 완성되진 않지만(고문 등의 강제적 수단의 사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백가공안의 포공처럼 귀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적인결의 현실주의자적 성품이 소설에 투영된 것이라 본다. 狄公案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2가지 사례가 있다. 이를 소개하면서 여타의 공안소설들과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우선 세 번째 사건인 화국상의 며느리 급사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호작빈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된 적공은 피해자의 가족인 화국상의 재촉을 받고

38)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제19회, pp.108-109.

39)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 -문화적 경계의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 17집, 2003, p.251.

사건이 해결되지 않음을 답답해한다. 아래의 예문은 그 뒷내용이다.

혼자서 조용히 堂上에 앉아 있었으나 생각해도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그때 집안의 하인이 한 잔 차를 올렸다. 사건을 審議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입이 마를까 걱정되어서였다. 적공이 그가 차를 올리자 덮개를 열었는데 몇 점의 검은 먼지가 차 위에 떠 있었다. 적공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찌 이리 세심하지 않느냐? 茶房에서 차를 올릴 때 清潔한 물로 끓이게 하였는데 위에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이나?” 그 사람이 재빨리 대답했다. “이는 차를 끓이는 이와는 무관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 차를 끓일 때에 처마에서 홀연히 먼지 한 덩이가 날려 안에 떨어졌으나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적공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一人坐在堂上，寂靜無聲，思想不出個道理。忽然值堂的家人，送上一碗茶來，家人因他審案的時候已久，恐他口中作渴。狄公見他獻上，當時蓋子掀開，只見上面有幾點黑灰浮於茶上，狄公向那人問道：“你等何以如此粗心。茶房獻茶，也不用潔淨水來煎飲，這上面許多黑灰，是哪裏來的？”那家人趕着回道：“此事與茶夫無涉，小的在旁邊看到，正泡茶時，那簷口屋上忽飄一塊灰塵下來，落於裏面，以致未能清楚。”狄公聽了這話，猛然醒悟。)40)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차에 하인이 가져온 차에서 먼지를 발견한다. 이를 추궁하던 중 하인의 대답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아낸다. 우연한 기회를 만나 사건을 해결한 것이기에 論理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搜查官의 입장에서 항상 주변을 꼼꼼히 살펴 단서를 얻은 것이므로 적인결의 判官으로서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일 것이다. 이에 대해 적공의 수하인 마영은 “어르신의 신묘한 살핌은 정말로 작은 것에도 이르지 않음이 없군요.”라며 탄복한다. 이후에는 화국상의 집의 차방 처마에서 한 마리의 독사를 발견하고 원인이 뱀이었음을 알게 되어 사건이 종결된다.

다음은 두 번째 사건인 淫亂한 婦女子의 남편 살해사건 중의 한 부분이다. 사

40)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제22회, pp.127-128.

건의 진행상 이 부분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절정의 부분이다. 모든 罪狀이 완벽한데도 사건의 주모자인 朱氏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한 고문을 견디고 있었다. 주씨와 정을 통한 徐德泰는 이미 죄를 인정했지만 주씨가 남편을 살해한 방법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적인걸은 한가지 방법을 떠올린다. 아래의 예문은 주씨를 심문한 특별한 방법에 대한 글이다.

(주씨가) 홀로 옥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무렵 二鼓가 울린 후였다. 갑자기 귀신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한바탕 陰散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 머리털이 거꾸로 솟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떨면서 일어났으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홀연히 獄門이 열리며 蓬頭亂髮을 한 검은 얼굴의 惡鬼가 들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잡고 큰 소리로 욕하며 말했다. “너 이 淫婦야! 남편을 해하여 죽였음에도 엄한 형벌을 당하여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 너의 남편이 陰狀을 고하여 이제 너와 對質하려하니 빨리 나를 따라 나서라!” 말하면서 차갑기 그지없는 손을 뻗어 잡아 갔다. 주씨는 이때가 되어 이미 놀라 넋이 나가고 어지러워 그가 이끄는 대로 앞으로 가게 되었다. 가면서 본 것은 그저 깜깜한 곳이라는 것뿐이었고 그녀가 어떤 전각에 도착하니 푸른 얼굴에 송곳니가 난 사람들이 계단 아래 서 있었다. 堂의 입구에는 많은 形具들이 벌려져 있었는데 칼산과 기름 솥, 炮烙과 철 멧돌 등 없는 것이 없었다. 당 가운데는 크나큰 公案이 있어 위에는 많은 서책들과 중간에는 높게 빛나는 것도 없이 오직 한 쌍의 촛대 위에 녹색의 크고 작은 초만이 불을 은은하게 빛나 정말로 사람을 두렵게 했다. …… 다시 보니 중간에 푸른 얼굴의 閻王이 紗帽에 누런 수염을 기르고 滿面에 怒氣를 띤 채로 앉아 있었다. …… (염왕이) 書案을 치며 노하여 말했다. “천하에 이 같은 淫婦가 있나! 謀害의 계책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구나. 만약 그 남편이 와서 알리지 않았다면 어찌 그녀의 악독한 계책을 알 수 있었겠는가. 좌우는 내 명에 따라 기름 솥을 준비하라.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마음속으로 밟아내려 하는 것이니 즉시 그녀를 안에다 집어넣어 영원히 輪廻하지 못하게 하라!” 양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있고서 많은 악귀들이 紛紛히 아래로 내려가 기름을 더 붓고 불을 더 뿜었다. 오로지 주씨가 잘못 자백하기만을 기다려 그녀

를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주씨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필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謀害한 이야기를 自認하며 아뢰었다.

(一人在牢禁中胡思亂想。哪知到了二鼓之後，忽然聽得鬼叫一聲，一陣陰風颯颯吹到裏面來，周氏不禁地毛發倒豎，抖戰起來，心下實在害怕。誰知正怕之間，忽然牢門一開，進來一個蓬頭黑面的，到了前面，一個惡鬼，將周氏頭一把揪住，高聲罵道：“你這淫婦將丈夫害死，拚受苦刑，不肯招認，可知你丈夫告了陰狀，現在立等你到閻王台前對質，趕速隨我前去。”說着伸出極冷極冰的手來，拖着就走。周氏到了此時，已嚇得魂魄出竅，昏昏沉沉，不由自己的，隨那惡鬼前去。只見走了些黑暗的所在，到了個有些殿閣的地方，許多青面獠牙的人站在階下，堂口設了多少刑具，刀山油鍋炮烙鐵磨，無件沒有。當中設了一張大大的公案，中間也無高照等物，惟有一對燭台上點着綠豆大的綠蠟燭，光芒隱隱，實在怕人，……不禁拍案怒道：“天下有如此淫婦，謀害計策，真是想入非非，設非她丈夫前來控告，何能曉得她的這惡計？左右，與我引油鍋伺候！若是周氏有半句遲疑，心想狡賴，即將周氏又入油鍋裏面，令她永世不轉輪回。”兩旁答應一聲，早有許多惡鬼陰差，紛紛而下，加油的加油，添火的添火。專等周氏說了口供，即將她又入。周氏看了這樣光景，心下自必分死，惟有不顧性命，自認謀害事情，上前供道。)41)

주씨는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고 지옥의 公堂에서 심문을 받는다. 모습이 기이하고 두렵게 생긴 악귀들과 주변의 풍경들은 그녀로 하여금 이곳이 지옥임을 믿게끔 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염라대왕이 다그치고 실제로 형벌이 가해지려하자 그녀는 죄를 인정하고 남편을 살해한 동기와 방법을 모두 밝혔다.

다른 공안소설이었다면 실제로 염라대왕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것이 된다. 하지만 『狄公案』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령의 도움 등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독자 여러분은 閻王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짜 地獄이었을까요? 바로 적공

41)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제28회, pp.162-164.

이 이번 사건의 審理에서 自白을 받지 못하고 형을 가해도 결국 吐說하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계책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마영에게 명하여 각 아전들 중 畢順(피해자)과 닮은 이를 찾아 죽은 귀신으로 변장하게 하였습니다. 馬榮은 判官으로, 喬泰와 洪亮은 소머리에 말얼굴을 한 귀신으로, 陶干과 다른 아전들은 陰差(저승의 아전)으로 변장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칼산과 기름 술은 모두 종이로 만든 것이었지요. 적공은 위에서 검은 재를 얼굴에 발라 검게 하였고, 한밤중인 三更에는 달빛이 없고 위에는 아무런 등불도 없이 오직 한 쌍의 녹색 초만 켜놓았으니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어찌 地獄과 닮지 않았나 하겠습니까? 이때 적공은 자백을 얻고서 마음이 매우 기뻐하며 後堂으로 들어가 다음날 다시 심문을 하기로 합니다.

(看官你道這閻王是誰人做的，真是個陰曹地府麼？乃是狄公因這案件審不出口供，難再用刑，無奈驗不出傷痕，終是不能定讞，以故想出這條計來，命馬榮在各差裏面，找了一人有點與畢順相同，便令他裝作死鬼畢順。馬榮裝了判官，喬泰同洪亮裝了牛頭馬面，陶干同值日差，裝了陰差，其餘那些刀山油鋼，皆是紙紮而成。狄公在上面，又用黑煙將臉塗黑，半夜三更，又無月色，上面又別無燈光，只有一點綠豆似的蠟燭，那種淒慘的樣子，豈不像個陰曹地府麼？此時狄公既得了口供，心下甚是歡悅，當時退入後堂，以便明日復審。)<sup>42)</sup>

이 부분은 작자이자 해설가가 개입한 것으로 적인걸이 주씨에게서 자백을 얻어낸 방법에 대해 독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일반 백성, 아니 모든 사람들은 本能的으로 死後世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宗教나 迷信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기도 하다. 적인걸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간파하고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재치를 보인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狄公案』에서 다루어지는 判官으로서의 형상은 소설의 구성상 앞의 30회에 집중되어 있다. 3가지 사건 모두에서 적인걸의 才智가 돋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공안소설과는 달리 『狄公案』에서는 초자연적인 대상의 도움을 받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소는 거의 배제된다는 점도 특이한

42)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제28회, p.166.

점이라 하겠다.

## 2) 醫術家 形象

醫術家は 醫員, 郎中, 醫生 등으로 불리는 직업이다. 藥房을 열고서 약을 팔고 병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 한편, 사방을 전전하며 약을 팔고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 『狄公案』속에서 적인걸은 첫 번째 사건인 六里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떠돌이 의생으로 변장하여 거리로 나가게 된다. 사실 주인공인 적인걸이 의생으로 변장하여 사건을 조사한 예는 『狄公案』의 全文 중 단 한번 등장할 뿐이다. 하지만 다른 공안소설의 판관들이 수하들에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는데 반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의술가 형상을 따로 분류해 보았다. 아래의 예문이 바로 유일한 예에 해당한다.

다음날 아침, 微行衣服으로 갈아입고서 약 파는 醫生으로 變裝하고 많은 약초들을 가지고 官廳을 나섰다. 먼저 南鄉官路 일대의 큰 鎮의 저자에서 만나 절을 다녔지만 한사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가게를 찾아 아래서 약초들을 늘어놓으면 올 사람이 있으리라.’ 하고 생각하면서 앞의 集鎮에 도착했다. 비록 성의 저자보다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관의 큰 도로로 객상과 선비, 벼슬아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동북쪽 귀퉁이에 牌坊이 있는데 위에 ‘皇華鎮’이란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방의 안으로 들어가니 맞은편에는 크디큰 담장이 있고 가운데에 門樓가 하나 나있었다. 문 앞에 세로로 네모난 패가 서있고, 위에는 ‘代當’ 두 자가 쓰여 있었다. …… 큰 소리로 외쳤다. “남북으로 오고가며 쉬고 또 쉬고, 즐거움만 알 뿐 근심은 알지 못한다네. 世間에 神仙術이 부족하니 질병이 오는 때가 스스로 말미암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성은 仁, 이름은 下傑이요, 山西 太原사람입니다. 어려서 널리 奇書를 얻어 의술에 정진하여 비록 華陀가 轉世한 것은 아니지만 扁鵲의 遺風이 있지요. 남녀를 막론하고 맥을 짚고, 內外各科와 醫難雜症에 이르기까지 저한테 오면 한 번에 무슨 병인지 알아서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데 가벼운 것은 즉시 효과를 보고, 중한 것은 3일이면 병



이 사라집니다. 오늘 친구를 방문하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으니 세상을 구하고 이름을 날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든 병이 있으면 오십시오.”

(次日一早, 換了微行衣服, 裝成賣藥醫生, 帶了許多藥草, 出了衙署。先到那南鄉官路一帶大鎮市上, 走了半日, 全無一人理問。心下想道: “我且找一個寬闊的店鋪, 下這藥草, 看是有人來否。”想着, 前面到了個集鎮, 雖不比城市間熱鬧, 卻也是官塘大路, 客商仕宦, 湊集其間。見東北角有個牌坊, 上寫着“皇華鎮”三字。走進牌坊, 對門一個大的高牆, 中間現出一座門樓, 門前樹着一塊方牌, 上寫着“代當”兩字。……高聲唱道: “南來北往體更休, 只知歡喜不知愁。世間缺少神仙術, 疾病來時不自由。在下姓仁名下傑, 山西太原人氏, 自幼博采奇書, 精求醫理。雖非華陀轉世, 也有扁鵲遺風。無論男女方脈, 內外各科, 以及疑難雜症, 只要在下面前, 就可一望而知, 對症發藥。輕者當面見效, 重者三日病除。今團訪友到此, 救世揚名, 哪位有病症的, 前來請教。”)<sup>43)</sup>

사건 조사 중 우연히 황화진에 이르게 된 적인걸은 변장한 모습 그대로 의원 행세를 한다. 물론 위의 글에서 적인걸이 한 말은 본인의 말일 뿐 실제로도 그렇게 영험한지는 알 수 없다. 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주씨의 집에 가게 된 것도 모두 위의 말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병을 고치지는 않았고 그저 우연히 두 번째 사건의 단초를 얻었을 뿐이다.

실제의 역사 기록인 史書에도 적인걸이 의술에 뛰어났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설화로는 남아 있는데 이 이야기는 『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된 『醫部全錄』 중 『醫術名流列傳』에 기술되어 있다.

『集異記』에 의하면 狄梁公은 醫藥에 精通하여 특히 鍼術은 더욱 오묘했는데 顯慶(당 고종의 연호) 中에 制에 應하여 關에 들어가는 中 華州의 關 闔 북쪽에 사람들이 뭉뭉이 모여 있어 모인 觀衆들이 마치 담장과 같았다. 적양공이 고삐를 잡아 끌고 멀리서 바라보니 거대한 牌에 큰 글씨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비단 천 필로 報酬하리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곳을 보니 열네다섯

43)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제3회, p.17.

되어 보이는 부잣집 아이가 꽤 아래 누워있어 코끝에 혹이 생겨 크기가 작은 돌과 같았고, 뿌리와 꼭지가 코에 연결되어 마치 젓가락과 같았으며, 혹 그것에 닿으면 시큰거리는 고통이 뼈에 새겨질 정도였다. 이에 두 눈이 혹에 걸려 있는 줄과 같이 되어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혀 고통이 극에 달해 얼마 안가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공이) 惻隱하게 오랫동안 보고는 이내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소.” 그 부모가 親屬들과 이마를 찡으며 바라고 청하였다. 곧 천 필의 비단이 실려 있는 수레를 둔 곳 옆에 앉고서 공은 (환자를) 부축하여 일어나게 했다. 腦의 뒤편에 침을 一寸정도 찌르고 병자에게 물었다. “침의 기운이 이미 병이 있는 곳에 이르렀느냐?” 병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이 마침내 침을 뽑자 혹이 손을 따라 떨어져나갔다. 두 눈 또한 처음과 같이 올라와 마치 일찍이 病痛이 없었던 것과 같았다. 그 부모와 親屬이 울며 절하였고 비단을 그에게 바쳤다. 공이 웃으며 말하길 “나는 이 아이의 목숨이 위급함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또한 급한 병에 뜻을 행했을 뿐 나는 기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오.” 하며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按『集異記』: 狄梁公性閑醫藥, 尤妙針術. 顯慶中應制入關, 路有華州闕闔之北, 稠稠人廣衆, 聚觀如堵. 狄梁公引轡遙望, 有巨牌大字云: ‘能療此兒, 酬絹千匹.’ 即就觀之, 有富室兒年可十四五, 臥牌下, 鼻端生贅, 大如拳石, 根蒂綴鼻, 纔如食箸, 或觸之, 酸痛刻骨, 於是兩眼爲贅所繩, 目睛翻白, 痛楚危極, 頃刻將絕. 惻然久之, 乃曰: “吾能爲也.” 其父母洎親屬叩顙祈請, 即輦千絹寘於坐側. 公因令扶起, 即於腦後下針寸許, 仍詢病者曰: “針氣已達病處乎?” 病人頷之. 公遽抽針, 而疣贅應手而落, 雙目登亦如初, 曾無病痛. 其父母親眷且泣且拜, 則以縑物奉焉. 公笑曰: “吾哀爾命之危逼, 吾蓋急病行志耳, 吾非鬻伎者也.” 不顧而去焉.)<sup>44)</sup>

한편, 드라마 『神探狄仁傑』 시리즈에서도 적인걸이 의술가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드라마 속의 적인걸은 私服을 입고 미행할 때 항상 떠돌이 의원으로 변장하여 高妙한 醫術을 펼쳐 사람들의 難症을 치료한다. 더구나 武則天이 약을 잘못 服用하고 잠시 동안 숨이 끊어지자 皇帝의 치료를 담당하는 太醫도 慌忙해하는

44) (清) 陳夢雷 등 著, 홍성민 譯,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醫術名流列傳 507卷』, 유페이퍼, 2013. pp.26-28.

상황에서 침착하게 침을 施術하여 숨을 돌려놓기도 하는 등 大家로서의 風貌를 보이기도 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술가로서의 형상은 『狄公案』 또는 『醫部全錄』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 3) 政治家 形象

앞서 언급 하였듯이 여타 公案小說들과의 차이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소설의 결말을 장식한다는 점이다. 魏泉의 서술에 따르면 “소설의 구성상으로 볼 때, 앞의 30회는 적인걸이 창평현령을 맡아 처리한 세 가지 민간 소송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50회는 적인걸이 河南巡撫使로 임명되어 白馬寺의 淫僧 懷義의 사원을 더럽힌 民婦 劫奪 사건을 다루고 있다. 51~64회는 ‘奇案’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닌 적공이 지혜로 조정의 간신들을 제거하고 무씨의 세력을 눌러 廬陵王을 맞아 입궁하여 즉위하게 하고 대당의 雄渾한 氣風을 다시금 떨치게 한 일을 쓰고 있다. 소설 전후 양 부분의 風格은 현격하게 달라 특히 후의 14회는 강렬한 政治志向性和 現實批判性을 갖추고 있다.”<sup>45)</sup> 라고 하였다.

『狄公案』 29회의 내용 중 등장하는 閻立本의 추천으로 京城으로 승진하여 가게 되는 상황은 실제 역사상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29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 간략하게나마 실려 있다.

당시의 當今天子는 바로 당 高宗이 崩御한 후 中宗이 즉위하였으나 방주로 귀양가고, 武則天이 조정을 장악했다. 이 武后는 바로 태종의 才人으로 武眉의 호를 하사받았다. 太宗이 붕어하고 궁의 나인들을 크게 방출하여 그녀는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어 불문의 제자가 되었다. 하지만 미모가 자못 아름다웠으나 性情은 陰險하였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고종이 즉위한 후 어느 날 밖에 나가 분향하는데 이 女僧을 만나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이때 王皇后가 고종의 뜻을 알고 은밀히 그녀에게 명하여 다시 머리를 기르게 하고 後宮으로 들였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 고종의 寵信을 받고 昭儀에 봉해졌다. 이로부터

45) 魏泉, 「公案與偵探: 從『狄公案』說起」, 『雲南大學學報』 2006年 第四期, 2006, p.66.

그녀에게 불량한 마음이 생겨나 도리어 王皇后와 蕭皇后를 해하여 죽이고, 그녀가 正宮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후 더욱 荒淫無道해지고 春宮을 어지럽혔다. 고종이 붕어한 후 그녀는 중종을 폐하여 방주로 귀양 보내고 廬陵王으로 降等시켜 천자라 칭하지 않았다. 그녀 집안의 조카들인 무승사, 무삼사 등은 모두 極品에 봉해지고 조정을 장악하였다. 무릇 선황의 옛 신하들인 徐敬業, 駱賓王 등의 顧命大臣들도 외로이 元老가 되어 쓰이지 않았다. 이때의 황음무도로 나라 안팎이 소란하여 당 왕실의 강산은 거의 무씨 성으로 변하려 하였다. 게다가 스스로 국호를 세워 後周라 칭하고 각종 악행을 저질러 붓으로 다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행히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녀가 무릇 재지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였다는 것이다. 閻立本은 武后의 爲人됨이 현인과 선비를 존경하고 좋아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정의 기강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때 狄公이 이와 같은 재주와 학식이 있음을 보고는 곧장 상주문을 갖추어 조정에 상주하여 적공의 관직을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此時當今天子，乃是唐高宗晏駕之後，中宗接位，被貶房州，武則天娘娘坐朝理政。這武后乃是太宗的才人，賜號武媚，太宗駕崩，大放宮娥，她便削髮爲尼，做了佛門弟子。誰知性情陰險，品貌頗佳，及高宗即位之後，這日出外拈香，見了這個女尼，心上甚是喜悅。其時王皇后知道高宗之意，陰令她復行蓄髮，納入後宮，不上數年，高宗寵信，封爲昭儀。由此她便生不良之心，反將王皇后同蕭皇后害死，她居了正宮之位。以後便宣淫無道，穢亂春宮。高宗崩後，她便將中宗貶至房州，降爲廬陵王，不稱天子。所有武則天娘娘家中的內侄，如承嗣、三思等人，皆封爲極品之職，執掌朝政；而將前頭先皇的舊臣諸人，即如徐敬業、駱賓王這一班顧命的諸大臣子，托孤的元老三公，皆置之不用。其時武則天娘娘，日夜荒淫無道，中外騷然，把一個唐室的江山，幾乎改爲姓武。而且武則天娘娘，自立國號，稱爲後周。種種惡習，一筆總難盡述。所幸者有一好處，凡是在朝有才有學之人，她還肯敬重十分。閻立本知道這武后娘娘爲人敬賢愛士，閻立本雖想欲整理朝綱，無奈一人力薄，此時見昌平縣知縣狄仁傑例如此清正，兼有才學，隨即具了一奏本，申奏朝廷之上。)<sup>46)</sup>

46)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29회, p.172.

이 부분의 내용은 해설자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자가 강제로 폐위되고 무씨 성의 여인이 정권을 찬탈하고 기어이 국호까지 바꾸는 무도한 행위를 하는 이 시기의 상황에서 閻立本은 그와 함께 당 왕실을 위해 싸워줄 동료를 찾은 셈인 것이다.

하남순무사가 된 후의 적인걸은 황제의 총애를 받던 음승 회의에게 죄를 묻는 등 무씨 일족과 본격적으로 정쟁을 벌이게 된다. 군대가 동원되는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武則天이 패배를 인정하고 廬陵王을 조정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래의 글은 廬陵王이 조정으로 돌아온 후의 일이다.

狄公과 元行沖이 (허경중을) 참수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조정에 들어 명을 받았는데 武后는 그를 梁國公에 봉하고, 平章事를 겸하게 하여 閣에 들어 宰相에 임명한다. 元行沖, 安金藏 등도 모두 功을 논하여 상을 주었다. 李飛雄은 스스로 투항하였고 실수로 奸計를 따랐던 것이므로 斬首는 면하게 하여 공을 세워 죄를 대신하게 하였다. 衆臣들이 다음 날 조정에 나아가 謝恩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奸臣들은 狄公의 威望을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꾀를 부리지 못하였다. 廬陵王은 東宮에 거하며 매일 武后를 侍奉하여 효를 다하였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온다고 하였으니, 적공이 都城으로 들어온 이래로 奸賊을 제거하고 조정의 紀綱을 정리했느라 조금의 쉴 겨를도 없었다. 더하여 年歲도 높아지고 精力도 쇠약해진데다 피로가 쌓여 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 해는 71세가 되던 해였다. …… 狄公이 保奏(인재를 추천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밤중 三更이 되어 홀연히 疾患 없이 殞命하였다. 조정의 각 관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哭聲이 땅을 울리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리워하며 잊지 않았다. 五鼓가 울리고 조정이 열리자 武后가 소식을 알게 되었다. 武后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狄卿이 죽으니 朝堂이 텅 비었다. 조정의 대사를 누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늘이 나의 國老를 빼앗아 감이 어찌 이리도 이르단 말인가!”

(且說狄公與元行沖監斬之後，入朝復命，武后封他爲梁國公，同平章事，入閣拜相。所有元行沖、安金藏等人，皆論功行賞。李飛雄故念自己投城，誤聽奸計，

着免其斬首，帶罪立功。眾臣次日上朝謝恩。從此那班奸臣皆畏狄公威望，不敢再施詭計。廬陵王居住東宮，每日侍奉武后，曲盡孝思。誰知樂極悲來，狄公自入京以來，削奸除佞，整理朝綱，全無半刻閑暇，加以年歲高大，精力衰頹，以至積勤成疾。這年正交七十一歲。……那知狄公保奏之後，未有數日，便身體不爽。到了夜間三更，忽然無疾而逝。在朝各官得了此信，無不哭聲震地，感念不忘。五鼓上朝，奏明武后，武后也是哭泣道：“狄卿家死後，朝堂空矣。朝廷大事，有誰能決？天奪吾國老，何太早耶！”<sup>47)</sup>

적인걸은 무씨 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廬陵王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武則天으로부터 높은 벼슬을 얻고 조정을 一新하였으나 그 자신은 끝내 숨을 거둔다. 적인걸 사후 적인걸의 위세를 두려워하던 무씨정권의 殘滓들이 다시 일어섰으나 적인걸이 추천한 張揀之, 姚崇 등에 의해 제압되고 결국 廬陵王은 복위되어 천자가 되었다. 그리고 廬陵王의 복위 후 적인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록이 사서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같음을 봤을 때, 작자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이 4장에서 다룬 『狄公案』속에서의 적인걸 인물형상에 대한 고찰이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만청 때에 지어진 공안소설 『狄公案』속에서의 적인걸의 인물형상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판관으로서의 형상은 적인걸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여타의 공안소설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서양의 탐정소설과의 성격적 차이도 알게 되었다. 둘째, 의술가로서의 형상은 소설 안에서 한 번 등장하여 비중은 작지만 다른 설화를 통해 문학작품인 『狄公案』으로의 수용양상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셋째, 정치가로서의 적인걸의 형상은 『狄公案』이 여타 공안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정치지향적인 성격을 통해 사서 속에서 증명된 적인걸의 정치가로서의 행적이 그대로 透映되었음을 발견했다. 또한 역사 사실을 제재로 한 이유는 당시 사회상과 연관지어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하겠다.

47)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63회, pp.393-394.

## 2. 『狄公案』 계열 文學作品을 통해 본 狄仁傑 人物形象

공안소설인 『狄公案』은 앞서 언급하였듯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勸善懲惡의 내용이 아니라 政治的인 批判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狄公案』을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네덜란드의 외교관 로베르트 반 홀릭(Robert. H. Van. Gulik)의 『大唐狄公案』 시리즈이다.

홀릭은 1910년 네덜란드 헬데를란트 지방의 주펜에서 태어났다. 군의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2살까지의 삶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다. 이후 네덜란드로 돌아온 홀릭은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인정받아 암스테르담 대학의 언어학자인 올렌벡으로부터 산스크리트어와 아메리카의 블랙푸트족의 언어를 배운다. 남은 시간에 중국어 개인교습을 받았다고 한다.

1934년 유럽에서 동아시아학 연구로 손꼽히던 라이덴 대학에 입학하여 중국어와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배운다. 학위를 마친 홀릭은 1935년 네덜란드 外務部에 들어가 도쿄 공사관으로 赴任한다. 이곳에서 그는 동양인들도 오르기 어려운 學問的 境地에 오른다. 고대 중국의 知識人 文化인 서예, 악기연주, 골동품 수집 등에서 탁월한 識見을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세계 2차대전으로 잠시 미국에 다녀온 후 다시 도쿄 공사관으로 부임한다.

그가 『狄公案』을 접하게 된 것은 1940년 무렵이었다. 그는 이 소설에 완전히 매료되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通俗文學, 특히 犯罪와 法庭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했다. 그러다 1949년 일본에서 『狄公案』의 일부분을 번역하여 출간했다. 이후에도 그는 중국의 수사기록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棠陰比事』와 같은 裁判記錄集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렇게 홀릭이 번역하고 각색한 소설이 서양에 널리 퍼지면서 서양에서 적인걸은 유명인물이 되었다.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하여 적공 관련 소설이 17권에 달할 정도였다. 홀릭은 1967년, 고국에서 휴가를 즐기다 사망했다.<sup>48)</sup>

48) 로베르트 반 홀릭, 『(명관관 디공 시리즈)쇠뿔 살인자』, 이희재 역, 황금가지, 2004, pp.265~280에서 인용한 도널드F.래시 글을 재인용함.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반 홀릭으로 하여금 『狄公案』에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일까? 위에서 인용한 박소현의 논문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다.

『武則天四大奇案』은 중국 서사의 진부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서구 탐정소설 및 근대 문학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번역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소설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중국적 색채’란 무엇일까? 반 홀릭이 정의하는 중국 탐정소설의 다섯 가지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스펜스가 결여된다는 것, 둘째, 혼령이라든가 계시라든가하는 초자연적·미신적 요소에 의존하여 범죄를 해결한다는 것, 셋째, 시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작가의 개입 등등 이야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지엽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넷째,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 다섯째, 이야기의 결말에 항상 범인의 처형장면이 삽입된다는 것<sup>49)</sup>

반 홀릭의 번역 및 창작 작업으로 인해 중국의 전통적인 공안소설이 서양에 전해지게 된다. 이때부터 서양에서는 중국의 공안소설을 서양 고유의 탐정소설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공안소설과 탐정소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박소현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sup>50)</sup>

『大唐狄公案』 시리즈가 널리 읽히게 되고 중외문학의 교류의 예로 평가됨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大唐狄公案』을 저본으로 하여 적인걸이 주인공인 탐정소설을 지었다. 이러한 인기를 토대로 TV 드라마와 영화로도 각색되어 ‘신탐적인걸’ 시리즈를 비롯해 영화 ‘적인걸’ 시리즈도 얼마 전에 2편이 개봉되는 등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적인걸의 인물형상에 관한 분석이므로 반 홀릭이 창작한 16편의 『大唐狄公案』 시리즈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화된 『狄公案』 계열 文化商品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소설인 『狄公案』과 비교해 달라진 적인걸의 인물형상 두 가지를 새로이 다뤄 보려 한다. 그 첫째는 탐정의

49)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 -문화적 경계의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 17집, 2003, p.249.

50) 위의 논문, pp.247-252.



형상이고, 둘째는 무술가의 형상이다.

### 1) 探偵 形象

『大唐狄公案』 시리즈에서 보이는 탐정 형상은 앞서 언급했던 관관의 형상과 달라진 점이라 하겠다. 반 홀릭이 서양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고자 각색한 내용이 이러한 부분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공안소설에서의 관관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고문을 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부분은 사건 해결과정에서 정밀한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서양의 탐정소설과는 확연히 달라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홀릭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부분이 그나마 적은 『狄公案』을 저본으로 창작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大唐狄公案』 시리즈 중 鐵釘案은 『狄公案』의 두 번째 사건인 淫婦 朱氏의 남편 살해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이다. 특히 鐵釘으로 남편을 살해한 수단으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완전히 원작과 같다고 하겠다. 하지만 원작에서 지옥의 재판정과 같이 꾸며 주씨를 두렵게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채용하지 않았다. 조금 더 논리적인 추론을 덧붙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것이 탐정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부분은 조력자인 郭婦人을 통해 『鐵釘案』을 해결하는 단서를 얻는 내용이다.

적공은 陸陳婦人이 남편을 죽인 범인임을 알았지만 그 범죄 수법을 알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는 관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그때 마침 郭婦人이 館舍로 들어와 작별의 인사를 건네며 적공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래의 글이 그 내용이다.

적공이 놀라며 물었다. “곽부인, 설마 陸陳氏의 비밀을 풀어낸 것이오?”

“아닙니다.” 곽부인이 말했다. “다만 저는 하나의 실마리를 나리께 보여드리려 하는 것이지요.”

적공이 크게 기뻐하며 창백한 두 뺨에 바로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외치며 말했다. “어서 말해보시오.”

곽부인은 자신의 몸에 걸친 선홍색의 커다란 망토를 휘감으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아녀자들은 집에서 酒食을 요리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 말고도 가족신을 꿰매기도 하지요. 나리께서는 가족신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시는지요? 어떤 때에는 손에 못 하나를 들고 못으로…….”

“못으로 원수의 머리에 찔러 넣지 못해 한스럽다!” 적공이 놀라며 말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리. 쇠못은 가늘고 길어서 만약 사람의 콧구멍으로 넣어 뇌를 찌른다면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지요. 누군들 어찌 죽은지를 알 수 없게 되겠지요.”

적공의 두 눈에서 희망의 불꽃이 켜졌다.

(狄公驚問：“郭夫人，難道你識破了陸陳氏的機關？”“不。”郭夫人道。“但我覺得有個線頭不妨與老爺拈出看看。”狄公大喜，蒼白的雙頰頓時泛起紅暈。叫道：“快說！快說！”郭夫人將身上的猩紅色大門篷裹了裹，慢慢說道：“我們婦道家除了在家料理酒食侍候丈夫外，還要縫補漿洗釘皮靴。老爺可知道釘皮靴是多麼令人苦惱的事嗎？有時手上拿着一顆鐵釘，恨不得……”“恨不得釘入仇人的腦袋！”狄公驚叫道。“我正是這個意思，老爺。那鐵釘又細又長，從一個人的鼻孔釘進腦子裏去，不須化費氣力，且絲毫不留痕跡。誰也不會知道是爲何死的。”狄公的兩眼閃出希望的火花。)<sup>51)</sup>

곽부인은 마치 노래를 부르듯 중얼거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말 속에서 적공은 육진씨가 어떻게 남편을 해쳤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후에 적공은 또 다른 사건의 비밀 또한 알게 되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곽부인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적공을 돕기 위함이었지만 이는 이전에 자신의 남편을 같은 방법으로 죽였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육진씨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 사형에 처해지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이야기한 곽부인도 산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두 번째로 『銅鐘案』 중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소금을 사적으로 판매한 죄로 林藩을 체포한 적공이 그의 죄를 밝혀내

51) (荷蘭)高羅佩 著, 陳來元 等 譯, 『大唐狄公案·鐵釘案』, 海南出版社, 2008, 第22章, pp.488-489.

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林藩, 이 증인은 너와 같이 스무 대를 맞으면 증거를 대겠지.”

林藩은 적공에 의해 엉망이 되고서도 핏발 선 두 눈으로 판관을 노려보았다. 아전들은 당 아래로 내려가 두꺼운 돛자리 두 권을 들어 올리고 검은 색 기름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水靑石板 위에 깔았다. 적공이 말했다. “이 두 명의 증인에게 각각 20대 씩 때려, 다시 입을 열어 증거를 대게 하라.” 당 아래의 사람들이 저마다 고개를 쳐들고 까치발을 세우고 목을 빼어 그것을 지켜보았다. 아전 두 사람이 각각 한 권의 돛자리를 들어 올리고 나머지 두 명이 돛자리를 향해 힘껏 몽둥이질을 하였다. 그러자 가늘고 하얀 가루들이 모래처럼 날려 검은 기름종이 위로 떨어졌다. 堂上에서는 홍량과 도감이 갑자기 크게 깨달아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적공이 큰 소리로 말했다. “林藩, 빨리 혀로 그것이 무엇인지 맛 보거라.” “소금이다!” 재판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異口同聲으로 말했다. “이것이 林藩이 사적으로 소금을 판매한 정황이다. 한포 한포의 私鹽들을 聖明觀의 藏經樓 안에 쌓아두고 이 돛자리로 소금 자루를 덮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많은 소금 가루가 묻게 되었지. 지금 한바탕 내려치니 곧 소금가루가 떨어져 내린다. 이로써 명백한 증거가 되었으니 뒤집을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林藩, 너는 무슨 할 말이 있느냐?”

（“林藩，我這個證人與你一樣，非得挨二十板子才肯作證。”林藩被狄公弄糊塗了，一對發紅的眼珠緊盯着狄公。衙役下堂去抬上了兩卷厚蘆席，又將一張黑色油紙小心鋪在水靑石板地上。狄公道：“將兩名證人各打二十板，再令開口作證。”堂下看審的人群一個個翹首肢足，伸長了脖頸。衙役兩人各扶起一卷蘆席，另兩名衙役掄起板子向蘆席狠狠拍打。紛紛揚揚，細白末子沙沙地落到了黑油紙上。書記桌上洪亮、陶甘恍然大悟，相視一笑。狄公厲聲道：“林藩，快用舌頭去嘗一嘗那是什麼。”“鹽！”看審百姓禁不住異口同聲叫了出來。“這便是林藩私屯私販的鹽！一包一包的私鹽就屯儲在聖明觀的藏經樓裏，這蘆席是用來墊放鹽包的。日長月久，故沾了許多鹽末。如今一頓撲打，便開。作了明證。鐵案如山，林藩還有什麼話可說的？”）<sup>52)</sup>

52) (荷蘭)高羅佩 著, 陳來元 等 譯, 『大唐狄公案·銅鐘案』, 海南出版社, 2008, 第24章, pp.458-459.

林藩은 소금을 감추어 두고 조금씩 가져다 팔았다. 그렇게 저장했기에 소금 자루를 덮었던 돛자리에 소금이 묻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적공은 이를 조사를 통해 다 파악하고 林藩의 죄를 묻기 위해 이렇듯 기이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비현실적인 방법에 依存하는 것이 아닌 論理的으로 證據를 찾고 이를 裁判에 이용하는 것으로 탐정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드라마 '神探狄仁傑'에서는 이러한 探偵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적인걸이 처음으로 李元芳을 만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장면은 적인걸이 팽택현령으로 左遷되었다가 돌궐사자의 갑작스런 살해사건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급히 洛陽으로 上京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돌궐사자를 살해한 이로 지목된 이원방은 신비의 인물로부터 적인걸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듣고 적인걸이 머물고 있던 驛館으로 몰래 침입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적인걸을 시험하려는 이원방의 말에 적인걸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원방의 신분을 밝혀낸다.

적인걸이 이원방의 주위를 돌며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찬찬히 뜯어보며 말한다.

“허리가 꼳꼳하고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으며 두 손으로 상을 의지하고 있군. 이는 전형적인 수비군의 하급 군관의 앉아있는 모습이라네. 얼굴은 憔悴하고 안색은 蒼白하며 두 뺨엔 붉은 기가 있으니 醫書의 이치를 근거로 말하자면 精血이 약해져 虛火가 위로 뜨는 것이니 이는 바로 피를 많이 흘려 그리된 것으로 이 점은 그대의 왼쪽 옷깃에 배어 있는 血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네.”

그러자 이원방은 놀라며 자신의 옷깃에 묻은 핏자국을 확인한다. 적인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이렇듯 야심한 시간에 그대는 창문을 통해 몰래 방으로 들어와 나를 만나려 하니 이는 필시 다른 사람들에게 행적을 알리고 싶지 않음이라. 그렇다면, 한 명의 군관이 몸엔 중상을 입고 행적은 비밀스럽게 하는 이는 바로 누구이

겠는가? 이원방, 돌궐사자단의 護送을 맡은 守備隊長이고, 조정의 제 1호 수배자이지.”

이원방은 더욱 놀라며 적인걸을 향해 다가오며 말한다.

“만약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원방입니다.”<sup>53)</sup>

적인걸은 그의 모습과 행동거지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금세 밝혀낸다. 이러한 장면은 설록 흠즈가 왓슨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설록 흠즈가 왓슨을 보고 바로 그의 신상을 알아내었듯 적인걸 또한 그렇게 한 것이다. 공안 소설의 판관이라기보다는 탐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狄公案』에 비해 『大唐狄公案』의 수사과정이 보다 정교해지고 논리적으로 변함에 따라 적인걸의 형상 또한 『狄公案』에서의 판관의 형상에서 사건의 비밀을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파헤치는 탐정으로서의 형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2) 武術家 形象

『狄公案』에서는 적인걸이 그저 문인의 모습으로만 등장한다. 그래서 무술가와 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大唐狄公案』에서의 적인걸은 무술에도 일가견이 있는 文武兼全의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狄公案』과 『大唐狄公案』에서 모두 등장하는 적공의 助力者인 4인방(洪亮, 馬榮, 喬泰, 陶甘(干)) 중 마영과 교태를 얻는 과정에서 적인걸의 무술가적 형상이 처음 등장한다.

이 장면은 적공이 홍량과 함께 蓬萊縣으로 부임하러 가는 도중 우연히 山賊 2명에게 습격당하는 부분이다. 적공은 故意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싸움을 유도하고 그들과 싸움을 시작하는데서 시작한다. 아래의 글은 그 후의 상황이다.

두 명의 巨漢이 들고 대노하여 闊刀를 들어 적공을 죽이려 하였다. 적공의

53) 드라마 ‘神探狄仁傑 1部’ 2회의 내용에서 부분 발췌.

검법은 精深하여 먼저 뒤로 한 걸음을 물러서 두 명의 거한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맹렬히 몸을 돌려 찌르니 먼저 한 명의 활도가 날아가 버렸다. 다른 한 명은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 한 쪽으로는 몸을 뺀어 동료를 보호하고 한 쪽으로는 칼을 들어 적공에게 다가갔다. 단지 3합이 지나고 적공의 一劍이 閃電처럼 나아가 그 거한의 두건과 한 타락의 검은 머리를 베어버렸다. 두 명의 거한은 두려워하며 길을 빠져나가 숲 속으로 도망가고자 하였는데, 도리어 적공은 크게 웃으며 寶劍을 거두고는 천천히 뺨 아래의 긴 수염을 어루만졌다. 홍량 역시 적공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명의 거한이 몸을 돌려오더니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客官께서는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저희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셨으니 후에 다시 만나더라도 감히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홍량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빨리빨리 도망가라! 이 분은 新任 蓬萊縣令이신 적 어른이다. 너희 두 무뢰배들을 참수시키기 전에 말이다.” 두 명의 거한은 부끄럽고 두려워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절을 올리고 산속으로 달아났다.

(兩個大漢聽了，不由大怒，舞起闊刀便向狄公殺來。狄公劍法精深，先賣個破綻退了一步，待兩大漢撲上前來，猛轉身回刺。先將一條大漢的闊刀擊飛了。另一大漢不甘示弱，一面挺身遮護同伴，一面舉刀舞向狄公。只三個回合，狄公一劍閃出，正削去那大漢的頭幘並一縷黑發。兩個大漢驚惶不已，欲待奪路向林中奔逃去，卻見狄公呵呵大笑，收了寶劍，一面慢慢捋動領下的大把黑須。洪亮也站到狄公身旁頷首頻頻。兩個大漢又回轉身來，拱手道：“客官留名，好叫我們識羞恥，日後但有相遇之時，不敢造次。”洪亮笑道：“你們快快逃命吧：這位是新任蓬萊縣令狄老爺，不斬你兩個無名鼠輩。”兩大漢羞惶滿面，又叩地一拜，乃逃入山林。)54)

검을 뽑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산적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켰다. 소설 속에서의 묘사와 같다면 적공은 검의 달인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 위의 두 거한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의 내용은 그 두 산적이 적공에게 자신들을 거두어줄 것을 청하고 적공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조사하고 적공을 보호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 내용은 『包公案』에서 包公을 습격했던 도적 4명을 展昭가

54) (荷蘭)高羅佩 著, 陳來元 等 譯, 『大唐狄公案·黃金案』, 海南出版社, 2008, 第2章, pp.6-7.

무찌르고 그들이 포공에게 투신하여 포공의 조력자인 王朝, 馬漢, 張龍, 趙虎가 된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의 분명한 다른 점은 적인걸은 스스로 무술을 사용해 그 둘을 제압했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包公案』과 『狄公案』의 차이점 중 하나가 되겠다.

다음은 ‘湖濱案’ 중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자. 이 장면은 狄公과 陶甘이 비밀 문을 열고 들어간 후의 상황이다.

적공과 도감이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겨 살금살금 조금씩 깊숙이 들어갔다.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려 검을 들어 찔러왔다. 적공은 준비가 되어 있어 급히 몸을 숨겼는데 그 사람은 뜻밖에도 王玉珣이었다. 왕옥각은 눈에서 凶光을 뿜으며 검을 들고 가까이 왔다. 적공은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음을 한스러워 하며 다만 뒤로 피할 뿐이었다. 도감이 몰래 촛대 하나를 들어 맹렬히 왕옥각을 향해 던졌다. 왕옥각은 피하지 못하고 가슴 한 가운데에 맞아 큰 소리를 냈다. 적공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와 한 발로 서탁을 차서 뒤집고 玉虎文鎮을 집어들었다. 왕옥각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劍柄을 집어 찌르려 하였다. 적공이 이에 힘을 다해 玉虎文鎮을 던지니 왕옥각의 印堂에 명중했다. 왕옥각은 바로 땅으로 엎어져 신음만 냈다.

(狄公、陶甘屏息躲形，躡手躡腳步步深進。那人突然回身持劍擲來。狄公有備，急忙躲閃，見那人竟是王玉珣！王玉珣目露凶光，持劍逼近。狄公悔恨手中無寸鐵，只得退避躲讓。陶甘在後偷偷抄起一支燭台猛向王玉珣擲投。王玉珣不及躲避，正中前胸，大叫一聲。狄公迅步飛搶上前，一腳踢翻案桌，捉冷眼拈起一方鎮紙玉虎。王玉珣氣喘咻咻，拈了拈劍柄，又劈面刺來。狄公一讓，用力擲出那方鎮紙玉虎，正中王玉珣印堂。頓時合撲倒地，捂面呻吟。)55)

숨어들어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뜻밖에도 왕옥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적공은 급작스런 그의 공격을 맞아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재빨리 몸을 수습해 그를 제압한다.

드라마 '신탐적인걸' 시리즈에서의 적인걸은 무술을 전혀 못하는 인물로 등장

55) (荷蘭)高羅佩 著, 陳來元 等 譯, 『大唐狄公案·湖濱案』, 海南出版社, 2008, 第18章, p.260.

하나 주위의 조력자인 李元芳, 如燕 등의 무술이 一流에 해당하기에 무술을 못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영화 적인걸 시리즈에서는 적인걸이 무협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처럼 화려한 검술을 보여주고 경공으로 사방을 날아다니듯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상업영화의 측면에서 볼 때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설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설 『大唐狄公案』 속에서 文士인 적인걸에게 새롭게 무인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날카로운 추리력과 과감한 판단력을 갖춘 적인걸에게 무술을 할 줄 안다는 설정을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 뛰어난 판관이자 탐정인 적인걸에게 부족한 무예적인 측면을 보충해줌으로서 완벽한 인간상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본다. 이 또한 적인걸이 문학작품으로 수용되면서 점차 영웅화되는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 3. 狄仁傑 人物形象과 時代現實

지금까지 위에서 다룬 내용들은 각각의 底本들에서의 인물형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예를 통해 立證하는 과정이었다. 이 장에서는 위의 研究를 토대로 이러한 인물형상이 형성된 원인을 당시 시대현실과 연관 지어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狄公案』이 刊行된 시기에 대해 먼저 考察해보도록 하겠다. 『狄公案』은 晚清 때의 공안소설이고 光緒 16년인 1890년에 간행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광서’를 연호로 사용한 청의 11대 황제인 光緒帝 때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狄公案』과 적인걸의 인물형상이 형성된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黃巖伯은 그의 저서 『公案小說史話』에서 『狄公案』의 政治性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제재가 宮中秘事인 점이다. 張昌宗, 懷義和尚, 薛敖曹 등 인물은 역사상 실재하던 인물로 모두 武則天의 남종 혹은 밀우였다. 여러 野史의 자료로



불 때 만청시대엔 사람들은 모두 慈禧皇太后에게도 역시 많은 이러한 방면에 서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 책이 쓰여진 때는 1890년으로 실제로 慈禧皇太后가 점점 남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때이다. 또한 바로 維新派인 康有爲 등이 變法을 통해 富國強兵을 圖謀하고 자희태후로 대표되는 腐敗勢力과 鬭爭을 벌이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자는 歷史題材를 골라 취한 것은 사실 古人을 빌려 당시의 시정을 풍자하기 위함이었고 武則天에 대한 폭로는 사실상 암흑현실을 대표하는 자희태후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其一, 題材本身寫的是宮闈秘事. 張昌宗、懷義和尚、薛敖曹等人, 歷史上實有其人, 都是武則天的男 "嬪妃" 或密友. 而從一些野史材料看, 晚清時代, 人們對慈禧皇太后也有許多這方面的猜疑. 其二, 這本書寫於1890年, 這正是現實生活中慈禧皇太后越來越招人厭惡的時候, 也正是維新派如康有爲等呼吁變法圖強, 與慈禧所代表的腐朽勢力開展鬥爭的時候. 所以, 作者選取歷史材料, 實際上是爲了借古人遺風時政, 對武則天的揭露, 實際上是把抨擊的矛頭指向了黑暗現實的總代表—慈禧.)<sup>56)</sup>

이러한 황암백의 말처럼 『狄公案』의 내용, 특히 30회 이후부터의 내용은 실제 『狄公案』이 간행된 시기인 청 말의 어지러운 政治狀況과 結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통해 황암백이 언급한 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는 宮中秘事에 관한 것이다. 武則天은 실제로 황암백이 말한 것과 같이 여러 男寵들을 거느렸다. 가장 먼저 武則天의 남총이 된 사람은 음승 회의이다. 이 회의화상은 武則天이 태종이 붕어한 후 절에 의탁할 시절 그의 뒤를 봐주던 이로 풍소보라는 사람이었다. 이후 고종이 승하한 후 武則天은 그에게 '설회의'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곁에 두었다. 설회의는 황실의 위세를 입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아 다른 남총들의 시기와 나중에는 武則天의 미움을 사 몽둥이에 맞아 죽

56) 黃巖伯, 『公案小說史話』, 遼寧教育出版社, 2000, p.96.

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 후에는 武則天의 딸인 태평공주가 추천한 장창종과 장역지 형제가 武則天의 신임을 받는다. 이들은 설희의와는 달리 봉각시랑 장구청의 아들로 사대부의 신분이었으며 20살도 안된 미소년들이었다는 점에서 武則天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武則天은 이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국정을 맡기는 등의 신임을 보인다. 『舊唐書』에는 적인걸이 이들의 횡포를 저어하여 상소를 한 글이 남아있기도 할 정도였으니 당시 이들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이들 이외에도 3000여 명에 달하는 남총들이 그녀를 시종 들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기만 하다.

그렇다면 慈禧太后(西太后)는 어떨까? 武則天과 같이 남총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자희태후가 남총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일례를 들 수 있다.

자희태후와 姓이 金氏인 미남자가 密室 안에서 껴안고 즐거움을 취했다. 막 그를 취하려 하는데 돌연 慈安太后가 들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자희태후는 수치스러움에 귀마저 빨개졌다고 한다. 자안태후는 그 성이 금씨인 미남자를 불러다 侍衛에게 명하여 칼로 베어 죽이게 했다. 자희는 수치스러워 화가 났고, 화가 나자 분노가 생겨났다. 그래서 다음 날 문을 지키는 작은 태감을 죽였다. 왜냐하면 그가 문을 잘 보고 있었다면 그녀가 추해짐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말이다.

(有一次，慈禧太后與一個姓金的美男子在密室里擁抱取樂，正有趣時，突然慈安太后一步闖入，撞個正著，羞得慈禧太后連耳根子都紅了。慈安太后將那個姓金的美男子喚出，命侍衛用刀砍死。慈禧由羞而惱，由惱而怒，第二天就把守門的小太監殺掉了，因為他沒有把門看好，讓她出了醜。)57)

위의 예를 보면 자희태후는 가짜 太監들을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희태후가 男寵을 거느렸다는 기록은 많았다. 나라가 西洋列強의 간섭 때문에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자체가 그가 태후로서 자질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狄公案』이 발간되던 당시 자희태후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57) 史宗義, 「慈禧太后的女人生活」, 『文學天地』2010年 4期, 2010, pp.36-38.

는 사실이다. 청 말의 상황은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강한 나라라 자부하던 中國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었다. 阿片戰爭으로 서양과의 격차를 확인한 改革性向의 관리들은 改革을 통해 청 왕조를 復興시키려 노력하였다.

‘中體西用’의 방식으로 서양의 문물을 보급하여 그들과 맞설 수 있는 戰力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淸日戰爭(1894)에서 이 또한 쓸모없음을 깨닫게 될 만큼 처참히 무너졌다.

중국의 영토가 서양 열강들에 의해 분할되어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科擧를 보기 위해 北京으로 상경한 이들이 황제에게 ‘公車上書’라는 이름의 上訴를 올린다. 이 상소의 주 내용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도자가 바로 康有爲와 梁啓超 등의 인물이었다. 1898년 자희태후가 垂簾聽政을 거두고 광서제가 親政을 시작하면서 康有爲는 光緒帝에게 개혁 추진을 권한다. 그리하여 광서제는 여러 방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명하는 勅書를 내리고 청나라는 개혁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던 자희태후는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개혁파의 지도자들을 잡아 처형하고자 하였다. 강유위와 양계초는 목숨을 건졌지만 청의 자발적인 개혁은 끝이 난 것이었다.<sup>58)</sup>

결국 청나라는 1911년 辛亥革命으로 멸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찌 보면 청나라의 멸망을 촉진한 자희태후에 대한 평가 또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狄公案』의 작자가 『狄公案』의 후반부에 보통의 공안소설과는 다른 정치성이 짙은 글을 실은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狄公案』의 주인공 적인걸이 정치가로서의 형상을 보여준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狄公案』의 작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 또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書頭에서 밝혔듯 현재 발간된 『狄公案』 중 일부는 『狄公案』의 작자로 吳趸人이라는 인물을 명시하고 있다. 오견인은 청 말의 대표적인 譴責小說 작가로 『二十年目睹之怪現象』 등의 소설을 지은 인물이다. 이들 몇몇 책이 작자로 오견인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견책소설이란 장르는 청 말에 등장한 社會小說의 한 부류로 견책소설이란 용어는 魯迅이 처음 사용한 것이다. 아래는 견책소설에 대한 魯迅의 설명이다.

---

58) Patricia Buckley Ebrey,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이동진 外 역, 시공사, 2010, pp.274-280.

대개 嘉慶 이래 비록 屢次 內亂을 平定하긴 했지만 또한 屢次 外敵에게 挫折당했다. 庶民들은 愚昧하여 아직도 차를 마시면서 역적을 평정하는 武功談을 잘 듣고 있었지만, 識者들은 이미 불현듯 개혁을 생각하고 敵愾心에 의거하여 維新과 愛國을 호소하고 富強에 관해서는 더욱더 뜻을 기울이고 있었다. 戊戌政變이 실패하고 2년이 지나 庚子年이 되자 義和團의 변란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정부가 國事를 도모하기에 부족함을 깨달아 돌연 排斥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소설에 있어서는 숨겨진 것을 들추고 弊惡을 드러냄으로써 당시의 정치를 엄히 糾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때로는 더욱 확대되어 풍속에까지 미치기도 했다.<sup>59)</sup>

이러한 독특한 사회상 속에서 등장한 견책소설은 1900년대에서도 많이 창작되어 주로 정부의 부패하고 무능함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기능과는 달리 문학적인 가치는 크게 떨어졌는데 그저 일화를 나열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며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官場現形記』, 『二十年目睹之怪現象』, 『老殘遊記』, 『孽海花』 등이 있다.

견책소설의 주요 의의가 당시 사회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의 비판이라고 한다면 『狄公案』의 후반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狄公案』을 편집한 사람들이 『狄公案』을 견책소설의 대표작가인 吳趸人의 작품일 것이라 추측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狄公案』의 작가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狄公案』의 독자층이 일반 대중이 아니고 소수 엘리트 계층임은 『狄公案』이 당시 지배계층이자 부패세력의 중심이었던 자희태후를 비판하는 의식 있는 士大夫들과 改革的인 人士들이 둘러보던 책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준 낮은 通俗小說로서의 『狄公案』에 대한 文學史的 價値를 再設定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59) 魯迅, 『中國小說史略』, 정범진 역, 학연사, 1998, p.329.

#### IV. 結 論

본 논문의 목적은 歷史人物인 狄仁傑이 文學作品으로 收容되면서 變化된 人物形象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우선 실제 역사인물인 狄仁傑의 行蹟 속에서 적인걸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特性을 발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2장에서 실제 史書 속의 기록을 통해 적인걸이라는 인물의 생애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대략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았다. 2장의 1절에서는 淸官의 표상으로서의 特性을 발견하였다. 權善才 사건에서 過한 처분을 받은 罪인을 위해 皇제와 干쟁을 벌인 점, 月王 李정의 난 이후 억울하게 讞罪된 사람들을 安타까워하여 은밀히 上奏해 그들을 도운 점 등 위로는 剛直하고 아래로는 自애로운 전형적인 淸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2장의 2절에서는 적인걸이 오초지방에서 2개월 동안 벌인 陰사철폐기록을 토대로 적인걸의 현실주의자적 태도에 대해 탐구하였다. 2장의 3절에서는 유달리 官職의 浮沈이 심했던 적인걸의 官職생활에서 武則天에 의해 무너졌던 唐 王실을 다시 일으킨 忠臣으로서의 적인걸과 武則天을 도와 나라를 安정시키고 끝없는 寵愛를 받은 助力者로서의 적인걸과의 모순적인 입장을 통해 당시 적인걸이 처해 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추측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文學작품으로 수용되면서 變化한 人物형상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래서 적인걸이 주인공인 文學작품인 淸代 公案소설 『狄公案』과 이후에 출간된 반 暹의 『大唐狄公案』을 통해 人物형상을 분석하였다. 3장의 1절에서는 公案소설 『狄公案』 속에서의 적인걸의 人物형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그동안 소설사에서 언급되지 않던 『狄公案』에 대해 소개하고 참고한 여러 자료를 통해 『狄公案』만이 가지고 있는 政治지향성에 주목하여 그동안 소설사에서 다른 여타의 公案소설과의 차이를 규명하여 『狄公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史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判官형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의 公案소설과 서양의 탐정소설간의 차이, 『狄公案』과 여타 公案소설과의 차이도 밝혀내었다. 그리고 소설 내에서 단 한 부분 등장하는 의술가로서의 형상에도 주목하였다. 비중은 비록 적지만 『醫部全錄』에 기록된 설화를

통해 실제 적인걸 또한 의술에 어느 정도 밝았으리란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술된 정치가로서의 형상이 『狄公案』에 투영된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狄公案』 64회 중 31회부터 武則天의 총애를 받던 음승 회의를 단죄한 사건, 그리고 무씨 일파와의 정쟁을 통해 폐위된 廬陵王을 복위시키는 과정이 서술된 점을 통해 여타의 공안소설에서 다루던 주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狄公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3장의 2절에서는 공안소설 『狄公案』을 底本으로 하는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을 비롯해 현대에 만들어진 드라마와 영화에서 등장하는 적인걸의 형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반 홀릭의 작품은 『狄公案』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借用하고 그가 연구한 고대 중국의 많은 사건기록(『棠陰比事』와 같은)으로 살을 붙였다. 여기에 반 홀릭이 본래 읽던 서양의 탐정소설적 요소들을 첨가하여 그만의 새로운 소설로 재탄생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狄公案』은 중국 탐정소설의 嚆矢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탐정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주인공인 적인걸의 인물형상도 범을 집행하는 판관에서 논리적으로 사건을 조사, 분석하는 탐정으로 바뀌어 간다. 또한 실제 역사적인 기록과 원작인 『狄公案』과 달리 무술에도 능했다는 작품 속의 묘사를 통해 무술가 형상을 발견하였다. 원작에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조력자인 마중과 교태를 얻는 과정에서의 무술대결,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벌어진 악인과의 결투 등이 그 예이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형상이 더욱 과장되어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기도 한다.

3장의 3절에서는 『狄公案』의 인물형상과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狄公案』 속에 투영된 인물형상들이 현실세계 속의 인물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狄公案』의 작자가 소설을 통해 당시 세태를 풍자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史書에 기록된 적인걸은 그의 훌륭한 人品과 現實主義者的인 態度를 堅持하는 점, 官吏로서의 두드러진 行蹟 등으로 볼 때 一般 民衆들이 推仰할 만한 對象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적인걸에 대한 說話들이 民間에 널리 퍼지게 되고 결국 文學作品으로 收容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안소설인 『狄公案』에서의 인물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공안소설이란 장르적 특성에 따라 소설의 전반부는 사건을 해결하고 법을 집행하는 判官으로서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후반부에서는 政治性이 강한 이야기들(武氏一族과의 政爭, 廬陵王의 복위 등)이 소설의 제재로 쓰여 이러한 부분이 여타 공안소설과의 분명한 차이점이자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근현대에 형성된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과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 등은 원작인 『狄公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정치성이 사라지고 대신 논리적인 사건 해결과정에 중점을 두는 서양의 추리소설에 가깝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앞 부분에서의 연구를 통해 공안소설 『狄公案』의 특징인 정치성은 청말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고발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작가의 주제의식이 담겨 있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狄公案』이 일반적인 공안소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인 권선징악과 통속적인 문체에서 벗어나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고자하는 주제의식을 품은 훌륭한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狄公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이 소설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狄公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인물형상이라는 좁은 분야에서 벗어나 소설의 전반적인 연구 분야(서사구조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劉昫 外撰,『舊唐書』,中華書局,1975.
- 歐陽修 外撰,『新唐書』,中華書局,1975.
- 司馬光 撰,『資治通鑑』,中華書局,2013.
- 黃永年 譯註,『舊唐書選譯』,鳳凰出版社,2011.
- 劉餗 撰,『隋唐嘉話』,中華書局 1997, p.40.
- 『太平廣記 卷298』,中華書局,1961, p.2371.
- (宋)司馬光 撰, 권중달 著,『資治通鑑』,2009.
- 佚名,『狄公案』,中州古籍出版社,2009.
- 佚名,『狄公案』(『中國公案小說』第二冊),吉林大學出版社,2009.
- 不題撰人,『(通俗本)狄公案』,四川人民出版社,2010.
- (清)吳趸人 著,張興旺 編著,『狄公案』,雲南人民出版社,2011.
- (荷蘭)高羅佩 著,陳來元 等 譯,『大唐狄公案(上,下)』海南出版社,2008.
- (明)安遇時 著,『百家公案』(『中國公案小說』第四冊),吉林大學出版社,2009.
- (清)陳夢雷 등 著, 홍성민 譯,『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醫術名流列傳 507卷』, 유페이퍼, 2013.
- (朝鮮)無名氏 撰, 김장환 校釋,『世說新語姓彙韻分 下』,학고방, 2012.
- 于廣哲 著,『狄仁傑真相』,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2013.
- 金開誠 主編,『知人善任-狄仁傑』,吉林文史出版社,2011.
- 龍宮幕 著,『狄仁傑,拯救大唐的權謀大師』,鷺江出版社,2012.
- 曹曷 著,『判案的智慧』,中國法制出版社,2006.
- 劉洪仁 著,『中國公案文學』,四川人民出版社,2009.
- 黃巖伯 著,『公案小說史話』,遼寧教育出版社,2000.
- 劉亦發,『中國全史』,中國辭書出版社,2009.
- 『中國民間故事集成 甘肅卷』編輯委員會,『中國民間故事集成 甘肅卷』,新華書店出版部, 2001, pp.55-57.
- 『中國民間故事集成 北京卷』編輯委員會,『中國民間故事集成 北京卷』,新華書店出版部, 2001, pp.45-47
- 이춘식 주편,『中國學資料解題』,신서원, 2003
- 魯迅 著, 정범진 역,『中國小說史略』,학연사, 1998.



- Patricia Buckley Ebrey, 이동진 外 譯,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10.
-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임중욱, 『中國歷代人名辭典』, 이회문화사, 2010
- 김상범,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2005.
- 林保淳, 「中國公案小說概述」, 『中國古典小說賞析與研究』(臺灣:正中書局), 1993.
- 孫翠秀, 「兩唐書中『狄仁傑傳』之比較」, 『林區教學』128期, 2007.
-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 -문화적 경계의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17집, 2003.
- 魏泉, 「公案與偵探: 從『狄公案』說起」, 『雲南大學學報』2006年 第四期, 2006,
- 錢錦, 「包公形象的时代變遷」, 『중국어문학논집』제48호, 2008.
- 고숙희, 「包公, 歷史에서 文學 속으로」, 『중국소설논총』제18집, 2003.
- 고숙희, 「中國公案小說小考-개념과 기원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제20집, 2000.
- 고숙희, 『포공 공안소설 연구: 『백가공안』과 『용도공안』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 邢意和, 「『狄公案』中國家法律思想與民間法律思想的矛盾」, 『沈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
- 박명진, 「명대 백화 공안소설에 나타난 청관형상의 문화적 특징」, 『중국소설논총』제19집, 2005.
- 이등연, 「중국고대소설연변사 제8장 공안소설 · 개요」, 『중국소설연구회보』제 48호, 2001.
- 凌兆鳳, 「狄仁傑形象淺探」, 『東華中華文學研究』10期(臺灣), 2011.
- 강주완, 『백가공안 연구』(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 Study of Di Ren Jie's Image of Character in 『Digong case』

Kim, Kyu Ta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images of characters created in process of accepting a historical figure Di Ren Jie in literary work through 『Digong case』, a novel of public security in the Qing Period, and literary works based on this novel and at investigating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character in 『Digong case』 and reality of the time.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I investigate a historical figure Di Ren Jie's life through historical records.

Second, I analyze Di Ren Jie's image of character through 『Digong case』, a novel of public security in the Qing Period.

Third, I analyze Di Ren Jie's images of characters appeared in 『A Judge Dee Mystery』 written by the Dutch Robert Hans van Gulik and movies and dramas produced in modern times.

Fourth, I explore relationship between Di Ren Jie character that I studied above and reality of the time, the end of Qing Dynasty when the work was formed.

Based on the above methods, I drew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 found out that Di Ren Jie recorded in the history is still an admired

official, given his character of great personality, sensible attitude, and noticeable achievements as an official.

Second, because of the genre feature of public security fiction, the image of Di Ren Jie in 『Digong case』 has a strong feature of a judge solving incidents. However, unlike the other public security novels, 『Digong case』 has a very political writings in the latter half of novel, which is a unique feature of 『Judge Dee』.

Third, in 『A Judge Dee Mystery』 and other works created based on this, unlike 『Digong case』, political nature disappears and those are nearer Western detective story focusing on logical solution of a case. Due to this, the image of Di Ren Jie character or a detective image is described remarkably.

Fourth, the strong political nature which is the unique feature of 『Digong case』 is a means for accusing confused social aspect of the late Qing and criticizing a faction of the then ruling power the Empress Dowager Cixi, which was expressed with evil deed of Empress Wu Zetian in the Tang Period as a material. This must be the subject that the author of 『Digong case』 tried to mention through this novel.

This result shows that 『Digong case』 is a great work with the subject of satirizing and criticizing the social conditions at that time, escaping from the good triumphing over the evil, the subject of general public security novels, and popular style of writing.

Key words: 『Digong case』, 『A Judge Dee Mystery』, a novel of public security, a novel in the Qing Period, detective novel, Di Ren Jie, image of character, Qingguan, political nature, reality of the time.